
푸른 장미 정원의 주인은
돈벌레 영애입니다
Artguru

1장. 아버지의 결혼

1화. 자살소동

“아가씨! 괜찮으세요?”

큰 소리로 보채는 소리에 깨우는 목소리에 눈을 떴다.

“윽…머리야”

“아리아 아가씨께서 일어나셨어요! 당장 의원을 불러오세요!”

지끈거리는 두통에 머리를 붙잡자 다급한 목소리로 다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리 참석하기 싫으셔도 그렇지!!! 피하실게 있고 아닐게 따로 있지!!! 자살기도라뇨?”

정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여기가 어딘건지 모르겠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침대 바로 앞 거울 속에 푸른 눈동자를 가진 인형같은 아가씨와 눈이 마주쳤다.

하루 20시간씩 일하느라 생기를 잃은 눈빛도 아니고 밝은 금빛의 구불구불한 긴 머리를 가진 여성.

관리 잘 받은 매끈한 피부와 고운 어깨라인, 물집 한번 잡혀본 적 없는 것 같은 하얀 손.

뭐야…얼굴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예쁜거 아니야…?

나는 박세나, 26세, 대한민국의 지독한 n잡러인데 대체 얜 누구지?

숙취처럼 깨질 것 같은 두통와 울렁거리는 속을 붙잡고 둘러보자 화려하고 깨끗한 방이 눈에 들어왔다.

방 안의 인테리어가 굉장히 익숙했는데 마침 눈에 들어오는 발레리나 오르골이 보였다.

“저 오르골… 저거 50만벨짜리…”

잠깐만, 여기 내가 하던 게임 속 내 캐릭터 방인데?

내가 진짜 개같이 벌어서 비싸고 좋은 아이템들로만 가득 채운 방이잖아?

세이빙 엠파이어가 힐링 게임은 아니었지만 여느 한국인답게 어느 게임에서든 개같이 벌어 개같이 써서 화려하게 꾸민 방이었다.

저 벽지, 저 거울, 소파, 티 테이블, 지금 내가 앉은 침대까지 전부 이 제국에서 가장 비싼 것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다.

그럼 내가 지금 게임 속으로 떨어진건가?

“하하… 이게 실화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하녀장을 올려다보며 픽하고 웃으며 말했다.

“웃음이 나오세요? 제가 진짜 웬만하면 화 안 내려고 했는데 아가씨 진짜 미치신 것 같아요!”

내 웃음이 그토록 경악스러웠는지 리타가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말했다.

“아가씨가 저거 사겠다고 공작님 몰래 일하러 가셔서 사오신 거 잖아요!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오르골 가격이 떠오르세요?”

하녀장 또한, 내가 기가 차다는 듯이 내려다보며 팔짱을 단단히 끼고 말했다.

여기가 게임 속이라면 아마 내가 하던 게임인 [세이빙 엠파이어] 일 것이다.

평소에 게임을 좋아하지 않던 내가 시험판 게임에 빠지는 바람에 남동생이 신기하게 쳐다봤기 때문이다.

생일선물로 시험판 게임을 선물해주다니 내 동생도 내 동생이지만 26년 살면서 게임에 그토록 빠져본 건 그 때가 처음이었다.
[세이빙 엠파이어]는 각자 맡은 캐릭터의 집안, 능력, 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강보스인 황태자와 싸워 솔라 제국을 차지하는 시나리오 게임으로 지금 나는 아리아드네 손느일 것이다.
아리아드네 손느는 손느 가문의 외동딸 캐릭터이며, 손느 가문은 이 제국의 문화예술을 기반한 사업을 꽉 잡고 있는 공작가였다.
“아리아 아가씨, 제 말 듣고 계신거 맞죠?”
“아무래도 해독이 덜 된게 아닐까요? 아가씨가 보기 드물게 차분할 때면 무서워요...”
저 쨍알거리는 말투로 날 닦달하고 있는 사람은 저택 하녀장인 쉘린일 것이고, 하녀장의 뒤에서 애꿎은 손톱만 뜯고 있는 작은 소녀는 내 전담 시녀인 리타일 것이다.
“쉘린, 리타. 제발 다들 조용히 해줘. 나도 상황 파악이 필요하단 말이야”
대체 내가 무슨 약을 먹었다는걸까?
나는 분명 이 게임이 정식 출시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게임을 접었는데.....?
게다가 이 게임은 완결 스토리도 나오지 않았고 체험판 출시에 불과한 게임이었다.
내가 게임을 접을 당시 상황만 해도 이 게임의 스토리는 극에 치달아 결국 솔라 제국은 황태자의 손에 제대로 불탔기 때문이다.
불 탔다는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잿더미가 됐다는 말이다. 미친 황태자가 제국이 다른 귀족들에게 넘어갈 것 같으니 솔라 제국을 폭파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황태자가 제일 먼저 죽인 귀족가문은 바로, 손느. 나의 가문이었다.
게임 속 스토리에 나오는 가문들은 협업을 통해 몸집을 불렸고 협력에 성공한 연합 가문들, 대부업을 꽉 쥐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은 동시다발적 위협을 가하면서 제국 뺏기에 동참했다.
물론, 손느 가문은 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다는 대부호 가문 명성이 무색하게 동맹에 실패해 연합가문에 끼지도 못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무너졌다.
마침 그 때, 남동생의 학비를 번다고 밤에도 일하기 시작했을 때라 게임을 잘 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손느 가문이 망해버리게 되자 게임도 접었기 때문이다.
그럼 현실에 남겨진 내 동생, 박세준은 어쩌지? 그 멍청이가 혼자 제대로 살 수 있을리가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나는 부모님의 사망 이후, 돈을 벌기에는 도가 텄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유명 대학에 입학한 똑똑한 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와 배달 등 닥치는 대로 일해가며 동생과 함께 살아갔다.
“아가씨, 상황 파악이 필요하세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시고 입 싹 닫고 모르는 척 하시려고요?”
계속 자리에 서있던 하녀장 쉘린이 내 표정을 살피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하녀장님, 근데 이게 사실 좀 큰 일은 아니죠.. 사실 아가씨한테는 공작님은 물론이고 솔라 제국 사람 그 누구라도 비난할 수 없을거예요! 실연의 아픔을 아버지를 통해 겪어야한다니 정말 최악이라구요.”

리타가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한숨을 푹푹 쉬었다.
“아가씨, 마음은 너무 아프시겠지만 공작님의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에요. 지금 당장 준비해야해요. 안 그러면 이 사교계에 아가씨의 안위를 두고 지금보다 더 한 소문들이 돌지 몰라요.”
쉘린이 내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말했다.
뒤에서 리타는 이제 손톱 뜯기를 멈추고 소름이 돋는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아가씨가 리버티 도련님과 함께 동반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된다면… 그 이후 일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어요.”
“리타! 이번 일은 철저히 우리만 알고 있어야해.”
쉘린이 홱-하고 뒤를 돌아 어린 시녀의 입을 조심시켰다.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오늘은 내 아버지의 결혼식인 것 같았다.
이 결혼으로 나는 그 어떤 혼처도 찾을 수 없어 연합가문에 가입하지 못했고 사교계의 뒷담화때문에 그동안 올려뒀던 호감도도 전부 땅에 처박혀 마지막 제국 폭파의 순간 전까지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현실에서도 도움 하나 없이 살아가야만 했던 내가 게임에서도 이토록 비참하게 몰락해야하나 하면서 패배감을 진하게 느꼈었다.
이 결혼은 그정도의 파급효과를 초래했다.
그도 그럴것이 대체 세상 어느 아버지가 딸의 약혼자의 어머니와 결혼을 한단 말인가?
정말 아무리 게임이라지만 K막장 드라마도 그렇게 쓰면 욕먹는다고..
심지어 손느 가문과 카를로스 가문은 10년간 각자의 외동딸과 아들을 약혼관계로 묶어두었다.
그러나, 이 망할 공작가문의 가주들이 서로 눈이 맞을 줄 알았겠냐고…
이 결혼 이후, 나의 약혼자였던 리버티 카를로스는 북부의 몬드 대공성으로 도망치듯 떠나버렸다.
그 덕에 나는 온갖 소문과 폭언을 견뎌내며 버텼지만 결국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게임의 끝을 맞이했다.
무슨 상황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게임 속 세계에 떨어진 이상, 같은 결말을 맞이해선 안된다.
내가 현실세계에서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게임 속 세계에서까지 욕 먹으면서 살아야해?
게다가 현실세계와는 다르게 여기선 내가 부잣집 귀족 외동딸이잖아?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이 생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엔 무조건 연합가문에 끼고, 어둠의 세계의 살해협박에서 자유로워지고, 완벽한 결혼을 하고,
제국의 폭파를 막아서 흥청망청 놀고먹는 귀부인이 될 것이다.
“아가씨. 의원 타하르 들겠습니다.”
아까 쉘린이 소리쳐 부른 의원이 뛰쳐들어와 내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아가씨가 도련님과 함께 드신 약은 톡신이라는 약초로 액체에 타면 무색 무취가 되는 가루약입니다. 게다가 거의 치사량에 가까웠어요. 게다가 술에 타 드시다니… 목숨이 2개거나 미치지 않

고서야 할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기억이 한개도 나지 않아. 리버티는 어때?”
아마 나와 그는 서로의 부모의 결혼을 축하할 자신이 없어서 술을 잔뜩 마신 것 같았다.
함께 자살 기도를 했다고 하니 그 놈 상황도 어떤지 내가 알아야하니 타하르에게 리버티의 상태를 물었다.
타하르가 한숨을 쉬면서 내 안색을 살피고 진찰하며 말했다.
“리버티 도련님이 아가씨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갔다 오는 길입니다. 도련님도 기억이 안 나신대요.”
“자살기도는 했지만 죽진 않았잖아? 그냥 서로의 약혼이 끝나는 것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 잔 했을 뿐이야.”
싱긋 웃으며 ‘단순한 헤프닝이었다’는 식으로 말하자 방 안에 있는 모두 안쓰러움을 담아 나를 쳐다보았다.
“앞으로 계속 이러실 건 아니죠? 아가씨, 바깥에 널린게 귀족 도련님들이에요. 리버티 도련님께 목 멜 필요가 없는 손느 공작가의 유일한 외동딸이시라구요.”
순진한 리타가 날 걱정하면서 말했다.
리버티도, 나도 손에 쥔 게 얼마나 많은 귀족들인데 겨우 고작 사랑의 실패로 자살이라니 말도 안됐다.
일단, 리버티와 얘길 정확히 나눠보기 전까지 심신미약 주취상태를 주장하는 수 밖에 없어서 입을 다물었다.
오늘 리버티 덕에 둘 다 초췌한 몰골로 여러 군데에서 동정을 사겠네.
그 동정이 비난으로 바뀌지 않게 리버티와 앞으로의 일을 공모해야만 했다.
이대로 리버티가 전처럼 몬드 대공저로 잽싸게 떠나버린다면 부모들의 사랑에 깨져버린 비극의 약혼 촌극의 주인공으로 혼자 몰락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아가씨. 이번에 아가씨와 도련님 모두 목숨을 건진건 정말 행운이에요. 두 분께서 오랜 약혼 기간에 쌓은 정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이런 식의 반항은 두 가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아가씨는 평소에도 위장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술은 절대 안되는거 알고 계시잖아요. 다신 이러지 마세요.”
타하르가 진찰을 마치고 내 눈을 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맞다. 이건 행운이지. 지겹도록 돈만 벌고 쳇바퀴처럼 돌아가던 피곤했던 인생에서 귀족 영애의 삶이라니.
모두가 꿈꿔본 환상 속의 삶이잖아?
“걱정시켜서 미안해. 이젠 절대 이런 일 없을거야. 그냥… 믿기지가 않아서 그랬나봐…”
뭐, 믿기지 않는건 사실이지.
이 게임 속으로 들어온 것, 대한민국에서의 삶의 기억이 동생 박세준 그리고 죽도록 일하느라 피곤한 것 외엔 마지막 장면이 흐릿하게 기억 나는 것, 게다가 아버지의 결혼 전 날, 전 약혼자이자 오늘로써 오라버니가 될 남자와 자살기도도 하고….

하나씩 정리해보니 정말로 최악이긴하지만 어쩌겠나.
이렇게 누워서 가련한 영애같은 행동을 하기엔 상황이 급박하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아버지와 리버티를 만나야했다.
“리타. 일단 아버지부터 뵙고 오도록 하자. 내가 그 양반한테 할 말이 많거든.”
롱스 손느 공작. 내 아버지. 내 결혼을 망쳐버린 그를 만나러 가야겠다.

2. 아버지의 결혼식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오후에 열릴 결혼식 준비에 한창인 롱스 손느 공작의 방문이 열렸다.
딸이 누가 봐도 조롱하러왔다는 듯한 삐뚜름한 표정을 지을 줄 알았는데 방문을 부술듯이 열어제낀 딸의 행동과 달리, 너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며 롱스 공작은 오히려 안절부절하며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리아, 괜찮니?”
자신의 결혼식으로 딸이 자살 시도까지 했다니.
롱스 공작 입장에선 아리아와 리버티가 그렇게 친했었나? 하는 의문이 들지만 미안하고 딸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는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며 대화를 건넸다.
“그럼요. 아버지는 결혼 준비 잘 되어가세요? 어젠 그냥 리버티 오라버니와 술 한 잔 기울이다 사고가 있었던 것 뿐이에요. 이제 진짜 오라버니가 될텐데 회포를 풀다가 선을 넘어버린거죠. 기억도 잘 안나요.”
아리아가 롱스에게 뚜벅뚜벅 다가가며 말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입은 검은 턱시도와 보타이를 다듬어주며 싱긋 웃어보였다.
“진심으로 아버지 결혼 축하드려요. 사실 말이 약혼이지, 리버티와 손도 한번 안 잡아본거 아시잖아요? 데이트란 걸 할 때도 늘 저흰 앞서 걷기만 했고, 사실은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뒤에서 자식들 몰래 사랑을 키워가며 손도 잡고 결혼을 결심하셨죠. 비난할 생각없으니 걱정마세요."
그렇다. 사실 누가 결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 결혼에서 가장 득을 본 사람들은 롱스 손느 공작과 파라 카를로스 공작, 오늘 결혼 하는 가주 두 사람이니까.
아들과 딸을 통한 연합을 꿈꾸며 약혼에 서명했지만 롱스는 카를로스 가의 언론 세력을 얻을 것이고 파라는 손느의 어마어마한 부와 예술사업을 등에 업게 될거니까.
“하지만, 가주인 우리들보다 너희가 더 자주 언론과 가십으로 소비되고 있으니 너희에게 미안할 뿐이야. 너희를 제대로 볼 면목이 없다.”
“아버지. 차라리 아버지가 결혼하셔서 다행이에요. 사실 리버티는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너무 샌님같잖아요?”
지난 게임에선 약혼을 강탈 당한 아리아의 분노는 아버지에게 향했고 손느 가문에 도움이 되는 그 어떤 행동도 선택하지 않았다. 플레이어 입장에서도 기가막힐 노릇이긴 하니까…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원망하던 아리아의 평판 하락은 당연한 말이었고, 도망간 리버티에게 아무리 호감도 상승을 위해 편지를 보내도 간단한 답신도 없었다.
결국, 자신을 고립시킨거나 마찬가지인 플레이를 이어갔고 결국 원망만 하다가 황태자에게 가장

약해보이는 귀족가문으로 제일 먼저 찍혔다.
“아버지, 이번엔 아버지의 결혼을 원망하지 않을게요. 최대한 잘 지낼거예요. 이왕 손느와 카를로스가 힘을 합친거 솔라 제국에서 가장 위엄있는 귀족가로 번성해야하지 않겠어요?”
아리아가 롱스를 꼭 껴안고 올려다보며 말했다.
“결혼 축하드려요, 아버지. 이번엔 반드시 행복할 거에요.”
*
귀족과 평민, 신분을 가리지 않고 솔라 제국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이번 결혼식은 모두의 이목을 끈만큼 아주 화려하게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미 여기저기서 카를로스 가문 소속 기자들이 하객과 결혼식 사진을 찍어대고 있었고 손느 가문의 후원을 받아 성장한 예술가들은 손느예술학교를 통째로 옮겨 놓은 듯 화려한 기교로 하객들의 귀와 눈을 자극하고 있었다.
물론, 이 식장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사람은 아리아와 리버티였다.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약혼자를 빼앗긴 가련하고도 비극적인 연인.
아리아와 리버티는 그렇게 온 제국 사람들의 동정 가득한 시선을 감내하는 중이었다.
“눈이 부시네.”
아리아가 한 손에 와인을 든 채, 리버티 쪽을 쳐다보며 말했다.
정말 이 화려한 대형 샹들리에가 홀 천장에 5개나 달려있었고 화려한 꽃이 즐비해 말 그대로 눈이 부셨다.
손느 가의 결혼이라 그런지 테마는 태양이었고 홀 중앙 무대 위로 비추는 조명은 눈이 찌푸려질 정도로 환했다.
리버티는 아리아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는지 아리아의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며 좀처럼 가까이 오고 있지 않았다.
아리아 입장에선 차라리 리버티와 같이 있는게 덜 초라해 보일 것 같은데 저 쪼다같은 리버티는 피하는게 상책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이 움직이면 본인도 움직이고 자신이 멈추면 본인도 멈추며 거리를 유지중이었다.
“아, 저런 회피형. 내가 많이 다뤄봐서 알지. 박세준같은 놈이네.”
아리아는 남동생이 자신이 화가날 때면 가시거리 안에서 깔짝거리지만 말은 걸지 않던 회피형 습관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참다 못한 세나가 세준에게 다가가 ‘야, 얘기 좀 해’ 하고 말을 거는 패턴이었다.
“이 세계에서나 저 세계에서나 왜 내 남자 형제들은 다 하나같이 저렇게 눈치만 보는거야?”
아리아는 짜증난다는 듯이 리버티를 째려보면서 혼잣말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부채를 든 귀족 영애 무리가 다가와 아리아의 어깨를 톡톡 건드렸다.
“아리아 영애. 평소 파티에서도 술은 입에도 대지 않으시더니… 하긴 오늘은 술 없이는 안되는 날이긴 하죠?”
“그러게요… 하긴 파혼과 결혼이 동시에 일어난다니 기절할 노릇이긴 하시겠죠.”
“콩가루 집안도 이런 집안이 없죠…”

이 상큼하고 소박한 빌런들은 뭐란 말인가.
이 게임에서 아리아드네 손느는 유약한 성정의 캐릭터였다.
현실에서의 제 삶이 너무 팍팍하고 드셌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존중받는 우아하고 가냘픈 성격으로 플레이 했던 기억이 났다.
애써 무시하려고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려는 찰나에 무리들 중 한 명이 신경을 긁는 소리만 하지 않았어도 아리아는 조금 더 참았을지도 모른다.
“이제 아리아 영애는 예쁘기만 한 향기 없는 꽃이 되시겠네요.”
소노마 에프리였다.
리버티를 오래도록 짝사랑해 온 영애였고, 게임을 플레이할 때도 소노마가 리버티와 가는 곳마다 나타나 훼방을 놓는 멘트를 날려 리버티와 호감도 쌓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그 전이었다면 저런 말을 듣고 조용히 홀을 도망쳐 울기를 선택했을 것이지만, 세나는 달랐다.
저런 사소한 친구들은 바짝 기를 죽여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신을 얕볼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 평판이 나락 갔던 경험으로 친구도, 가족도 잃어본 그녀는 더이상 참으며 눈물 흘릴 생각이 없었다.
아리아는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는 표정으로 뒤돌아 영애 무리를 쳐다보았다.
“그러는 영애는 꽃도 될 수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아, 영애가 한번 리버티에게 가서 새로운 약혼을 청해보기라도 하세요. 그치만 나름 10년이나 꽃같은 저와 약혼 생활을 유지해 온 리버티에게 잡초가 눈에 들어올진 모르겠네요.”
“뭐…뭐라구요? 잡초?”
열이 잔뜩 받아 부들거리는 소노마를 뒤로한 채, 아리아는 이제 제 오라버니가 될 리버티에게 아리아가 다가갔다.
“어…. 어…. 아, 왜 이 쪽으로 오는거야…”
리버티는 계속 아리아를 주시하며 결혼식장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분명 아리아도 자신을 쫴려보고 있긴 했지만 다가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녀가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자 당황하기 시작한 것이다.
“리버티. 자네 갑자기 왜이렇게 불안해 해?”
“하긴 결혼식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긴 어렵지?”
테이블에 모여있던 리버티 주변의 귀족들이 리버티의 행동이 다소 부산스러워지자 한 마디씩 얹기 시작했다.
반대편에서 아리아가 축지법 쓰듯이 테이블 쪽으로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다.
‘도망…도망쳐야돼’
다른 귀족들이 리버티를 긴장한 비련의 남성 다루듯 하는 것도 못 들어주겠으니 도망이 최선이긴 했다.
두리번거리며 도망갈 곳을 찾는 리버티가 테이블을 벗어나려던 찰나, 아리아가 싱긋 웃으며 리버티 앞에 도착했다.
“리버티?”

“으응…?”
긴장한 리버티의 목소리가 갈라져나왔다.
“잠깐 얘기 좀 하는게 어때?”
“어어…그래야지!”
어색한 미소와 말투로 대답하는 리버티는 누가봐도 궁쥐에 몰린 사람의 얼굴이었다.
아리아와 리버티가 말을 섞기 시작하자 홀의 눈과 귀가 모두 두 사람에게 노골적으로 집중되었다.
“어째 결혼식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한테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네, 그치 오라버니?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 오히려 남매가 되어 난 더 좋은 것 같아.”
아리아가 웃으며 리버티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말했다.
“어, 어 그럼. 우리가 10년동안 쌓은 우정이 있는걸? 아리아 너와 어떻게서든 가족으로 엮여서 좋네. 그리고 그림체는 오히려 부모님쪽이 더 잘 어울리지.”
리버티가 찔린 옆구리가 아팠는지 슬쩍 감싸쥐면서 대답했다.
“맞아, 우린 사실 좀 머리색도 똑같아서 남매쪽이 더 어울리긴해. 아, 오라버니. 어머니를 좀 뵙고 싶은데 우리 같이 대기실에 가서 어머니 긴장을 좀 풀어드리자!”
“어…어…가자, 가자”
“그럼 경들. 결혼식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라버니랑 저는 이만. 모두 즐거운 시간 되세요?”
당차게 자신의 팔을 잡아 끄는 아리아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리버티의 모습을 모든 홀 안의 사람이 보게 되었다.
홀 안의 그 누구도 그 모습을 보고 다정한 남매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 숙제였지만 아리아에게 더 급한 일은 리버티와 앞으로 가문을 지키는 일이었다.
*
“저기 아리아, 여긴 신부 대기실 방향이 아니야. 저쪽으로 가야해.”
손목을 잡혀 끌려오던 리버티가 아리아를 멈춰세우며 말했다.
“내가 정말 사이좋게 대기실에 가자고 널 따로 불렀겠어? 어제 저녁에 우리의 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일을 어떻게 할지 상의하는 게 먼저 아니야?”
아리아가 그정도도 생각 안 하냐는 듯이 채근하는 말투로 말했다.
“리버티, 난 네 계획을 알아. 이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몬드 대공성으로 도망갈거지?”
“그걸 어떻게…! 그거 말고 방법이 없잖아. 수도에 너랑 나랑 계속 있다가는 소문만 커질거야.”
“리버티, 넌 나이를 어디로 먹었니? 그건 그냥 도망이고 회피잖아! 이 말 많은 수도에서 내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 모든 파티에서 니가 없으면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거야?”
“자꾸 보이는 것보다 일정 시간동안 피해있는 것도 방법이니까.”
“무슨 방법? 너만 쏙 빠져서 잊혀지는 방법이겠지. 난 널 그냥 보낼 생각이 없어. 억지로라도 다정한 남매인 척 해줘. 가문의 명성에 더이상 누를 끼칠 수 없으니까 협조해, 리버티.”
“하…난 자신 없어, 아리아.”

리버티가 정말 박세준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세나였다.
K장녀인 세나는 늘 자신보다 2살 어린 남동생이 속 터지는 소리를 할때마다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이 세계에서는 심지어 2살 많은 오빠가 이럴 줄이야.
'보통 미디어에서 보이는 오빠들은 듬직하던데 얜 왜 이러는거야?'
“리버티. 딱 3달만 화목한 가정, 그거 해보자. 그 다음은 떠나든 말든 자유롭게 해. 하지만 3달 동안은 너도 최대한 우리 가문들의 명예 복권을 위해 힘써야 해. 아니, 그러겠다고 해줘.”
아리아가 정말 절실하게 리버티의 손을 붙잡으며 부탁하던 찰나, 하얀 플래쉬가 아리아의 정면에서 파박-하고 터졌다.
“앗…!”
눈 앞에서 플래시가 터지니 아리아는 눈을 찌푸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상하게 어지러웠고 숨이 막혀온 아리아는 털썩 주저 앉으며 호흡을 고르려 노력했다.
"허억...헉..."
아리아는 호흡이 진정되기는 커녕 계속 불안정해지자 무서워지기 시작해 리버티를 향해 손을 뻗었으나
리버티는 아리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불빛이 난 쪽으로 뛰쳐가기 시작했다.
“당신 뭐야!”
리버티가 사진을 찍은 불청객에게 큰 소리를 내며 쫓아오자 불청객은 재빨리 뒤돌아 도망을 가려고 뒤돌았을 땐, 벽처럼 단단한 사람의 가슴팍에 부딪혀 오히려 뒤로 넘어져 주저 앉고 말았다.
“윽….”
부딪히며 꽤 크게 넘어진 탓인지 카메라는 이미 땅에 떨어지며 부서졌고 벽처럼 서 있던 사내는 카메라를 한번 더 발로 밟아 산산조각을 내버렸다.
“이런… 그러게 잘 보고 다니지 그랬나.”
“펠릭스 몬드?”
리버티가 사내를 알아본 듯 반갑게 다가왔다.
"몬드가 언제부터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었나..."
펠릭스라는 거구의 남성은 떨어진 카메라를 주우며 불청객에게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몬드 가에 카메라 값 청구해. 할 수 있으면.”
청구할 수 있을리가 있나. 몬드 가를 모르면 제국 사람이 아닐것이다.
몬드 가는 솔라제국의 황실 가문으로 불청객이 부딪힌 사람은 황궁만큼 큰 북부 대공성의 후계인 펠릭스였다.
황실 적통 후계 4위였고 황태자 다음으로 권력을 차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펠릭스는 피도 눈물도 없는 불도저 같은 성격으로 유명해 평민들에게 '펠릭스 인터뷰 사이다 발언 모음집'이 떠돌만큼 명성이 자자했다.
물론, 그의 잘생긴 얼굴과 하늘이 내려준 신체조건이 받쳐줬기에 더욱 유명세를 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왕실학교 차석으로 졸업하여 황태자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황실 서열엔 관심없다는 듯 수도엔 가뭄에 콩나듯 내려왔다.
불청객은 '아이씨…'하면서 내달리기 시작했다.
"아이작. 저 쥐새끼 반드시 잡아와."
펠릭스가 자신의 호위인 아이작에게 불청객을 잡아올 것을 명령했다.
"펠릭스? 펠릭스 맞지? 이게 얼마만이야."
불청객을 뒤따라온 리버티는 펠릭스를 발견하고서는 환한 미소를 내비치며 걸어왔다.
당연하게도 리버티는 펠릭스가 눈 앞에 있단 것이 너무 반가워 끌어안기 일보직전이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리버티는 펠릭스에게 이 결혼식이 끝나면 왕실학교 동문인 펠릭스 몬드의 대공성으로 갈테니 몬드 가의 발전을 이루자는 편지를 보냈었기 때문이다.
마침 아리아가 갑자기 자신을 붙잡으며 떠나지 말라고 하던 것을 거절하기 어려웠는데 펠릭스가 와주었다면 그가 돌아가는 편으로 함께 돌아갈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펠릭스. 도와줘서 고마워. 내 편지를 받고 와준건가? 학교를 졸업하고 2년만인 것 같…"
리버티가 반갑게 펠릭스에게 다가가며 악수를 건넸으나 펠릭스는 리버티가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이 그를 쌩-하고 스쳐지나가 아리아에게로 향했다.
리버티가 스쳐지나가는 펠릭스를 돌아보았고 하얗게 질려 쓰러진 아리아를 발견하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리아!"
펠릭스는 쓰러진 아리아를 안아들며 차가운 눈으로 리버티를 바라보았다.
"저 카메라 들고 아리아드네를 눕힐 수 있는 방으로 안내해."
결혼식 시작 1시간 전이었다.
*
아리아는 몇시간 전처럼 침대에 누워있었다.
미혼의 귀족 여성의 방에 건장한 남성 둘이서, 그것도 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두 사람이 동시에 있는 걸 알면 세상사람들은 이것 저것 화려한 이야기를 지어내 떠들기 바쁠것이 뻔했다.
"펠릭스. 다시 한번 도와주어 고마워. 그런데 아리아가 빨리 일어나야 할텐데…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고…"
리버티는 펠릭스를 보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넌 지금 이 상황에 결혼식이 중요한가?"
펠릭스가 누가봐도 이를 꽉 깨문 채 대꾸했다.
"아니, 아리아의 상태도 걱정이지만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수많은 소문이 생길거고 아리아와 가문에 더 큰 피해가 생길테니까… 아리아는 그걸 더 싫어하는 것 같거든."
"너의 약혼자 아니었나? 애정이 전혀 없는 오라비로 태세 전환이 빨리 됐네."
"내가 어쩔수 없는 일이니까."
펠릭스는 리버티의 무력함에 질려버린 듯한 표정으로 다가가 그의 멱살을 끌어올렸다.

“내가 너였다면 약혼자를 지키기 위해 함께 도망이라도 갔을거다. 아니? 너희의 약혼이 먼저였으니 절대 당신들의 결혼은 있을 수 없다고 했을거야. 넌 그냥 아리아와의 약혼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거지.”
“크흡…펠…펠릭스…이거 놓고 얘기해…나도 다 사정이…….”
리버티의 얼굴이 숨이 막혀 새빨개질 지경에 다다랐고 펠릭스는 잡은 멱살을 놓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리…리버티…?”
아리아가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건 키 큰 남자에게 멱살 잡힌 리버티였다.
상황을 제지하려 아리아가 벌떡 몸을 일으켜 앉았다.
“당신 누구야? 누구길래 리버티 멱살을…!”
펠릭스는 아리아의 목소리가 들리자 꽉 잡을 멱살을 풀어주었고 리버티는 쿨럭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펠릭스가 아리아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뭐야…? 펠릭스 몬드…? 아, 리버티의 편지를 받고 왔구나… 어휴 리버티 저 자식을 그냥…. 확 더 졸리게 둘 걸 그랬나’
펠릭스를 알아본 아리아는 리버티의 편지를 받고 펠릭스가 손느 공작의 결혼식에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펠릭스는 플레이 하면서도 거의 본 적이 없기에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크고 단부진 체격이라 놀라움이 일었다.
펠릭스는 단번에 아리아의 옆자리까지 다가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는 아리아에게 책망하듯 물었다.
“손느 영애. 쓰러진걸 들고온 건 나인데 왜 내게 화를 내?”
*
“그러니까 사설 기자가 결혼식장에 침입했고 몬드 경이 그 기자를 잡고 카메라를 부쉈다는거죠? 쓰러진 날 여기까지 안고 와주기도 했고요?”
아리아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재차 펠릭스에게 물었다.
“맞아. 당신 전 약혼자는 내가 꽤 반가웠는지 당신이 쓰러졌는지도 모르고 악수하러 오더군. 쓰레기같은 약혼자를 뒀어”
‘그래. 확실히 도망칠 구실이 생겼는데 반가워 미칠 것 같았겠지.’ 하고 아리아는 생각했다.
아리아가 리버티를 째려보자 리버티는 뒷머리를 멋쩍게 긁적거리며 “아리아, 미안해.” 하고 사과했다.
“펠릭스 경, 그래도 제 오라버니 되는 사람이고 이제 가족인데 쓰레기라뇨. 펠릭스 경은 생각보다 예의가 없으시네요.”
“난 예의 차려도 되는 사람한테만 존중하는 편이거든. 아까 쓰러질 때 기둥에 부딪힌 것 같았는데 괜찮은가?”
확실히 쓰러지면서 어깨에 돌부리 같은 것에 찢어진 자상이 있었다.

상처가 깊지는 않았지만 핏방울이 맺혀있었고 피부가 여린 편인 그녀는 살갗이 벌겋게 부어오르기까지 했다.
“이정도야 뭐. 단순한 타박상이니 괜찮아요.”
“그래도 흉지면 안되니까 리타라도 부르자. 그리고 혹시 어제 일로 몸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멀리 찌그러져 있는 줄 알았던 리버티가 다가와 아리아의 환부를 살펴보며 말했다.
“괜찮아. 어제 일도 하타르가 약제도 만들어주고 갔어. 정말 괜찮아, 리버티. 그리고 지금 펠릭스 경이 있으니 나중에 얘기하자. 리타 좀 불러줄래?”
침대 옆 의자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펠릭스는 리버티와 아리아의 모습을 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적나라하게 내비치고 있었다.
리버티는 그녀의 팔을 놓고 중문을 열어 침실 밖으로 향했고 거실 밖에 있을 리타를 힘차게 부르며 나갔다.
*
“펠릭스 경. 경도 이만 나가주세요. 도와주신 건 정말 감사해요. 따로 감사인사 드리러 찾아뵐게요.”
펠릭스는 일어날 생각이 없다는 듯 탁상 위에 올려진 오르골을 만지작 거리며 아리아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말했다.
“저런 유약한 약혼자에게 미련 있어?”
“미련… 남들은 다 있다고 떠들던데 경이 보기엔 어떤가요?”
“글쎄, 저 자식은 확실히 없어보이긴 하는데 정황상 있는게 맞으니까. 그리고 교정에서도 유명했어. 당신이 리버티에게 보낸 선물과 편지가 늘 사물함에 가득했거든. 그걸 본 사람들은 미련이 철철 흐르는 비련의 연인 프레임을 벗어던지기 쉽지 않을거야.”
아리아는 호감도 올리려고 온갖 선물 다 갖다 바치던 그때를 후회했다.
무조건 리버티와 결혼해서 연합가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 정말 꾸준히 선물과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놈의 호감도는 정말 간혹가다 한번씩 쥐꼬리만큼 올랐지…
“리버티가 좋아하긴 했나요?”
“당신 표정을 보니까 좋아했다고 말해야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 간혹 필요한 게 들어오면 그것만 쏙 챙겨갔거든. 마음이 꽤나 아픈 일이지.”
“아뇨,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남들이 리버티보다 날 더 불쌍해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다들 내가 버림받았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으니 내 뒷얘기가 더 많이 도는게 이상할 일도 아니네요.”
아리아가 무미건조하게 장갑을 만지작 거리며 말하자 펠릭스는 속이 상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모를 얼굴로 아리아를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아리아도 당연히 그녀를 향한 뜨거운 시선이 느껴져 펠릭스의 시선을 마주봤다.
펠릭스는 솔라제국의 북부 군사세력을 담당하고 있는 몬드 대공가의 후계자였다.
그는 솔라제국의 황제의 조카였으며 진짜 로열패밀리라고 할 수 있었다.
왕실 학교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두뇌와 신체능력을 가진 펠릭스였지만 늘 마지막 기계공

학 시험에서 리버티에게 밀렸다.
그 덕에 리버티는 늘 수석이었다.
펠릭스는 키가 큰 편인 리버티보다도 10센치는 큰 것 같았고 아리아와 리버티는 색빠진 에쉬빛 금발의 머리칼과 푸른색 눈동자를 가졌지만 그는 까만 머리칼에 칠흑같이 까만 눈동자를 가졌다.
아리아는 도대체 저 눈동자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파악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듣자하니 어제 리버티와 무슨 일이 있었나보던데”
“아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이제 남매가 되니 사이좋게 지내보잔 얘기를 하려고 만났거든요.”
“그런 것 치곤 꽤 걱정하던데…”
펠릭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침실 중문이 벌컥 열리며 리타가 허겁지겁 들어왔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 리타. 그냥 쓸린거야. 호들갑 떨 필요 없어”
아리아가 펠릭스의 눈치가 보이는 듯이 작은 목소리로 리타에게 말했다.
“시녀가 왔으니 난 이만 실례하지.”
펠릭스가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고마워요. 몬드 경. 은혜 잊지 않을게요. 참, 결혼식은 정말 성대하고 제국 최고의 요리사들이 만든 음식으로 준비했으니 마음껏 즐기다 돌아가주세요.”
아리아가 자리를 떠나는 펠릭스에게 말했다.
*
침실 문은 조심스럽게 닫고 나온 펠릭스는 아리아 방의 거실을 지나 아리아의 방 문을 신경질적으로 활짝 열었다.
그 앞에는 열리는 문에 코를 맞은 리버티가 서 있었다.
“으아…내 코….”
“리버티. 네 여동생, 너랑 닮았네. 짜증나.”
펠릭스가 코를 붙잡은 리버티를 내려다보며 말하고서는 결혼식장 방향으로 사라졌다.
4. 진짜 가족
롱스 손느와 파라 카를로스의 예식은 꽤 간단한 식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롱스와 파라 모두 사별로 배우자를 떠나보냈기에 재혼을 성대히 진행해도 됐을 것이다.
하지만, 차마 딸이 될 아리아의 드레스를 뺏어 입고 버진로드를 걸을 순 없었는지 파라가 먼저 그저 간단한 파티쯤으로 끝내자고 제안해왔다.
화려한 홀과 각양각색의 예술단은 아마 롱스의 생각일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시선과 집중이 조금은 분산될 것이라고 생각했나보다.
그러나 그 예상은 조금도 들어맞지 않은 채, 톤 다운된 녹회색 드레스로 갈아입고 등장한 아리아와 같은 계열의 진한 회색 수트를 입고 들어온 리버티에게 시선이 집중되었다.
“아버지, 결혼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우리 이제 가족이 되었네요.”
상처를 치료하고 긴 소매의 드레스로 갈아입은 아리아가 리버티의 팔짱을 끼고 홀 안에 등장하

여 모든 이의 주목을 끌었으나 둘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웃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고맙고 미안하구나, 아리아. 하지만 이렇게 어머니가 되었으니 나도 최선을 다 하마. 잘 부탁해.”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전 파라, 당신께서 제 시어머니보단 어머니가 된 게 더 좋답니다.”
아리아의 마지막 말로 롱스, 파라, 리버티가 모두 웃음을 터트렸다.
아리아는 진심으로 그녀의 가족이 된 그들과 행복하고 싶었다.
제 남동생과 저는 그렇게 화목한 가족생활을 오래 느껴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항상 자신은 동생을 챙겨야하던 입장이기에 가족은 언제나 부양가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물론 자신도 남동생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고단한 첫째의 삶이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귀족들은 저 네 사람이 가족으로 그림같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 저와 춤추러 가시죠.”
리버티의 제안으로 일어난 파라는 롱스에게 눈짓을 하며 “당신도 아리아와 함께 춰야죠.” 하고 말했다.
홀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네 사람이 춤을 추기 위해 자리하자 잔잔한 왈츠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아리아는 집안의 가세가 기울기 전 어릴 때 발레를 배운 기억으로 아예 춤을 모르진 않으니 꽤 괜찮게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롱스의 리드로 발도 밟지 않고 꽤 괜찮게 스텝을 맞추는 중이었다.
반면, 리버티는 오히려 파라의 리드를 당하며 춤을 추고 있어 아리아는 꽤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각자의 부모와 춤이 끝나고 파트너를 바꿔 아리아와 리버티가 춤을 추게 되었을 때, 확실히 아리아는 리버티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세상에, 저 둘이 춤을 다 추네. 지난 10년동안 한번도 없었던 일이잖아? 약혼자일 땐 한번을 안 추다가 남매가 처음 추다니….”
“지금 누가봐도 리버티 경이 긴장한 모습같지 않나요?”
“저같아도 그러겠어요. 10년동안 방치한 약혼녀와 첫 춤인데 발만 밟고 있으니….”
“저 모습을 보니까 정말 두 사람이 남매라고 해도 될만큼 닮긴 했네요.”
“그러게요…. 리버티 경의 저 발재간 말고 얼굴만 보면 비련의 연인이 따로 없네요.”
“이제 보니 리버티 경과 영애 사이에서는 10년동안 남녀의 스파크랄까? 그런게 전혀 없긴 했죠.”
“명문 귀족가의 숙명 아니겠어요. 서로 좋은 짝이기만 하면 됐죠.”
“그렇죠. 어디 이 시대에 연애결혼이 흔한가요? 어쩌다보니 저 둘은 부모때문에 파혼당한 입장이라 당황스럽겠어요.”
“특히 아리아드네 쪽이 좀 더 손해죠. 10년동안 한 사람과 약혼했던 여인을 누가 데리고 가겠어

요? 자신이 모든 면에서 리버티 다음으로 두번째 경험이 될게 뻔한데”
“그럼요. 첫사랑은 못 잊는 법이니까요.”
귀족들이 리버티와 아리아의 모습을 보고 끊임없이 수군거렸다.
그렇다. 리버티와 아리아는 약혼 관계동안 같은 파티에 있었지만 같이 춤을 추는 호감의 시간을 함께 나눠가진 적은 없었다.
‘리버티… 이 자식이 이렇게 춤을 못춰서 그동안 나한테 신청을 안 한거라면 오히려 다행일 수준이네…’
아리아는 자꾸만 드레스 밑으로 발 끝을 차대는 리버티에게 점점 화가 나고 있었다.
“오라버니. 춤 처음 춰 봐? 내 발가락들 다 멍 들겠어.”
“으악….미안해. 춤을 잘 못 추거든…”
리버티는 땀이 삐질삐질 나는 것만 같았다.
“오라버니는 춤에 재능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날 잘 잡아주기나 해줘.”
말을 끝마치고 아리아는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려 발레 발동작을 음악에 맞춰 보이기 시작했다.
*
홀에서 한 마리 나비처럼 폴짝거리는 아리아를 지켜보고 있던 펠릭스는 방금 전 그녀의 찰과상이 있었던 팔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수도의 2월은 이르게 찾아온 봄기운에 다들 얇은 소재의 드레스를 입었는데 아리아 혼자 상처를 가리기 위해 조금은 두꺼운 소재의 녹회색 긴 소매 드레스를 입었다.
상처를 가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긴 했겠지만 리버티가 그녀의 팔을 붙잡은건지 누르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꽉 누르고 있자 상처가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했다.
펠릭스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무래도 리버티는 정말 남편감으론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춤이 끝나고 아리아는 팔에 살짝 통증이 있는지 얼굴을 잠시 찌푸렸지만 금새 미소를 지으며 리버티와 홀에서 빠져나갔다.
펠릭스는 아리아의 상태가 궁금하기도 하고 리버티에게도 대공성으로 데려갈 생각 없으니 따라올 생각 말라고 말해야했기에 홀에서 빠져나가는 둘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뭐야… 외도하는 아내 뒤를 밟는 기분이네…”
펠릭스는 스스로 어이없어하면서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둘이 점차 저택에 후미진 유리 정원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펠릭스는 더 이상 따라가면 안된다는 걸 알지만 뒤따라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
저택의 유리정원으로 리버티를 데려온 아리아는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매서운 눈으로 리버티를 쳐다봤다.
“리버티. 내가 말했지. 제발 3개월만 소문을 잠재우고 떠나달라고.”
“하…아리아. 내 생각은 변함없어. 내가 있으면 더 공격적인 소문들만 나돌거야.”
“넌 그 3개월이 어렵니? 난 10년을 너와의 약혼으로 묶여서 사교계 혼처에서 거의 사실혼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였다고! 근데 니가 훌쩍 떠나버리면 난 어떻게 해야돼?”
그까짓 3개월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자신이 이렇게까지 매달려야되나 싶은 아리아였다.
막말로 현재 자신의 상황은 닭 쫓던 개, 낙동강 오리알 신세였다.
“아버님과 어머니가 널 잘 챙겨주실거야.”
“지금 저 깨볶는 신혼부부한테 어리광을 피우라는거야? 이 나이를 먹고?”
“네 나이가 어때서. 아직 좋은 혼처는 있을거야. 아니면 내가 왕실학교 동문 중에서라도 꼭 구해줄게.”
리버티는 진심으로 자신이 중매쟁이라도 될 마음이 있었다.
아리아는 기가 차다는 듯이 대답했다.
“내가 너한테 왕실학교로 보낸 그 수많은 편지랑 선물들. 너 그거 어떻게 처리했어?”
“아….”
“듣기론 니가 갖고싶은 것들만 쏙 가져가고 편지는 읽지도 않아서 내 편지는 모두 돌려봤을 것 같던데? 근데 뭐? 왕실학교에서 혼처를 찾아? 넌 수석 졸업한 사람 맞아? 멍청이야?”
“편지를 돌려보지는 않았어. 정말이야. 그리고 나 다른건 다 참아도 멍청하단 얘긴 못 참아, 아리아.”
“네네, 어련하시겠어요. 훌륭하신 카를로스 차기 공작인신데 머리에 든거 없단 소리는 절대 못 참으시겠죠.”
아리아가 빈정거리면서 말했다.
“빈정거리지 마, 그리고 나도 수도를 떠나겠다는 건 앞으로의 내 커리어를 힘들게 시작하겠다는 의미야. 일종의 희생이라고. 너만 희생하는 것처럼 말하지마, 아리아.”
“뭐…? 희생? 니가 진짜 희생을 알기나 해? 이 빡대가리야!!!”
아리아의 발작 버튼이 눌려버렸다. 세나는 ‘희생’이란 단어에 예민했다.
세나는 늘 세준에게 누나로서, 하나뿐인 보호자로 희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똑똑한 동생의 비상을 꿈꾸며 세나는 정말 닥치는대로 일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뒷바라지 했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동생과 말싸움을 할 때, 세준의 눈에 비친 푸석한 자신의 모습과 바라지 않은 자신의 희생으로 괴로웠다고 소리치던 동생의 모습은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
“니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그러니까. 바란 적 없다고 했잖아. 누나가 그 자식한테 가서 빌었을거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난 백번이고 천번이고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 넌 내 동생이니까.”
“그럼 내가 누나 동생이 아니면? 그럴 필요 없겠네?”
“뭐? 나 이제 누나 동생 안 할게, 누나도 누나 인생 살아.”
그 말을 끝으로 세준은 밖으로 뛰쳐 나갔고 세나는 맨발인줄도 모르고 세준을 뒤따라갔다.
“박세준!!! 너 거기 안 서?”
한참을 따라오던 세나가 양 팔을 벌리고 세준 앞을 막아섰다.

“야! 너 발에서 피나잖아! 왜 이러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러는건데!! 진짜 제발!! 누나도 누나를 좀 챙겨!!”
그 때, 세준의 뒤에서 SUV차량이 헤드라이트를 켠 채 달려오고 있었고 세나는 동생을 있는 힘껏 옆으로 밀쳤다.
그게 세나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
“지금 너 나한테 ‘빡대가리’라고 한거야??”
그래, 저 단어는 세준의 발작 버튼이었다.
똑똑한거 하나로 누나 호강 시키겠다고 살았던 세준인데 멍청하다는 얘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 이 빡대가리야! 너랑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해!”
아리아와 리버티가 서로의 발작버튼을 눌러 언성이 높아졌고 아리아는 주먹을 꽉 쥔채 얼굴까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뭐? 그리고 아리아, 내가 희생에 대해선 어깨너머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너같은 귀족 아가씨는 희생에 대해 눈곱만큼도 몰라."
"뭐? 니가 나에 대해 뭘 얼마나 아는데?"
"굳이 많이 알아야 해? 너같은 귀족 영애는 아쉬운 소리 한번을 안하고 살았을텐데 니 입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튀어나오니까 같잖아서 그래."
"뭐? 같지도 않아? 너 말 다 했어?"
"다 했어. 했으면 어쩔건데?"
"넌 멍청한데 이기적이기까지 하구나. 니가 하는 일이 희생이야? 니가 진짜 약혼에 대한 예의를 가진 사람이면 날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이게 내 예의야."
"예의는 상대방을 배려한 행동일 때 존중받는거야! 내가 내 동생한테 가르치던걸 너한테 새로 가르쳐야되니? 너 몇살이야? 왜이렇게 모자라?"
"동생?"
리버티가 아리아에게 동생이 어디있냐는 듯 쳐다봤다.
"그래! 너같이 너만 아는 개차반인 인간이랑은 다르게 박세준은 멍청이처럼 굴다가도 내가 원하는대로 해줬다고!"
아리아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다.
순간 갑자기 리버티의 눈에 이채가 돌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리아를 양 어깨를 붙잡았다.
“박….박세나…? 누나야?”
‘얘 뭐야….?’
“박세준…?”
서로 눈이 마주친 두 남매는 경악으로 질겁한 표정을 지으며 순간 서로를 훅 하고 밀쳐냈다.
“뭐야 이게….? 지금 니가 박세준이라는거야? 진짜 내 동생이라고?”

5. 불꽃놀이, 비련의 연인, 눈물

세준은 자신의 이름이 아리아의 입에서 나오자 정말로 기절할 것 같이 기쁘기도 하고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말도 안돼...이게 꿈도 아니고 진짜라는거야?"

아리아가 제 볼을 이제서야 꽉 꼬집으며 이 세상의 자신과 동생이 현실임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나도 지금 믿기지가 않아. 눈뜨니까 게임 속 이었어. 근데 누나는 여기 또 왜 있는 거야. 미치겠네.”

왁스까지 잘 발라 정리한 머리가 헝클어졌다.

“그러니까 너도 지금 이 게임 속으로 빙의된 거라는거지? 나만 미친게 아니라는거지?”

세나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멍하게 서서 대답했다.

“어. 미쳐도 곱게 미쳤어야 됐는데 우리 둘은 같이 미쳤나보네.”

“그럼 우리… 그 사고로 죽어버린건가?”

세나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말했다.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참 어이없는 죽음이네.”

세나가 쓰게 웃으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세준을 올려다봤다.

세준은 한쪽 눈을 찡그리며 세나를 끌어안아 다독이며 말했다.

“괜찮아. 이것도 어쩌면 누나와 나한테 온 기회야. 여기서 행복하면 돼.”

"과연 이게 맞는걸까?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 이 지독한 삶을 또 살아야한다니."

아리아가 자조하면서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누나가 죽는거보다, 이렇게라도 그냥 우리끼리 서로 미쳤다고 생각하면서라도, 누나가 살아가는걸 보는게 좋아."

세준은 진심으로 지금 이렇게 된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누나와 자신이 한날 한시에 죽은 덕분에 새 삶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이 알면 미쳤다고 생각할거야."

아리아가 리버티의 품에 안긴 채로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잘 살아가야지. 튀지 않게, 우리가 누릴 행복을 누리면 되잖아."

"그럴 수 있을까?"

“적어도 여기선 우리 돈 걱정은 안 하고 하고 싶은거 하면서 살 수 있잖아.”

"그러네. 맨날 돈 많은 집 딸로 다시 태어나고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진짜 그렇게 되다니..."

“누나가 하고 싶은거 여기서 다 해. 게다가 이번엔 내가 오빠잖아? 언제나 누나는 나보고 동생이 최고라면서, 누나도 누나같은 누나를 갖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뤄졌네.”

세준이 세나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뭐래. 오빠라는 인간이 제일 먼저 도망갈 생각을 하냐? 어?”

세나는 세준의 품에서 벗어나 세준의 어깨와 등을 찰싹찰싹 치면서 말했다.

“도망 안 갈게, 누나. 누나인지 몰라서 그랬지.”

세나는 세준에게 본격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다.

“근데 넌 이 게임 안 하지 않았어? 왜 너도 같이 오게 된걸까?”
세나가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세준이 사준 게임이지만 세준이 하는 모습은 한번도 보지도 못했고 이런 류의 게임은 세준의 취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누나가 게임에 미쳐서 퇴근만 하면 해대길래 나도 궁금해서 해봤거든. 리버티가 제일 똑똑한 캐릭터 같아서 선택했지, 나같잖아.”
“동시에 플레이해서 우리 서로 호감도가 곧 죽어도 안 올랐나보네…. 난 니가 리버티인줄도 모르고 선물이랑 편지는 시도때도 없이 보냈는데….”
'안녕, 리버티. 아리아야. 왕실학교 입학을 축하할 겸 만들어 본 거야. 맛있게 먹어.'
'리버티, 첫 시험 결과를 들었어. 역시나 1등했더라? 1등 축하해.'
'리버티, 졸업을 축하해."
그렇게 생각하니 세나는 그동안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 너무 수치스럽게까지 느껴졌다.
“어우, 누나 근데 편지 쓰는 법은 배워야겠더라. 사랑이 단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
“연애를 해봤어야 알지. 너 키우느라 연애는 다 소설로 배워서 그래.”
“또 내 핑계 대지마. 근데 누나 일단 우리 저택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곧 불꽃놀이가 시작될 시간인데 우리 둘이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면 안될 것 같아.”
“당연하지. 친남매가 더이상의 가십으로 소비되는 건 내 쪽에서도 사양이야. 소름끼쳐.”
아리아가 어깨를 잘게 떨었다.
"그리고 이왕 우리가 남매로 엮인 비극적 스캔들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아리아는 두 눈을 반짝이며 리버티를 쳐다보았다.
"뭔데?"
"너와 나의 새 정혼자를 찾는거지."
"새 정혼자?"
리버티가 놀라며 되물었다.
"응.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에 더 집중하기 마련이거든."
"각자 서로 정혼자를 잘 찾아주자. 이 말인거지?"
"응. 그러니까, 누나 이상형 알지? 돌아가서 잘 찾아봐줘."
"알아, 누나 얼빠잖아."
리버티가 아리아에게 큭큭 웃으며 말했다.
"저게 진짜. 또 속 뒤집는다 또!"
"아 알았어. 먼저 갈테니까 좀 이따 홀에서 봐."
리버티가 ‘누나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하고 정원을 빠르게 빠져나갔다.
*
“도련님! 대체 여기서 뭐하십니까? 아이작이 아까 그 쥐새끼를 잡았다고 어떻게 할 지 묻는데요?”
펠릭스의 비서 데이빗이 펠릭스를 한참 찾았다는 듯이 말했다.

“어…? 수도에 있는 별장 지하에 가둬. 나중에 가서 물어볼 말이 있거든.”
“네, 그럴게요. 어 근데 저기 리버티 도련님이랑 아리아 아가씨 아닌가요? 어? 두 분 싸우시는것 같지 않아요?”
거리가 멀어 파악하기 힘든지 두 귀에 손을 대고 자세히 들으려고 데이빗이 몸을 쭉 빼며 얘기했다.
그러자 펠릭스가 데이빗의 목덜미를 잡아끌며 “엿듣는 건 나쁜거야” 하며 만류했다.
“에이, 도련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죠. 근데 두 분 너무 격하게 싸우시는데 아리아 아가씨 얼굴이 터질 것 같이 빨개졌어요. 제가 가서 말릴…”
데이빗이 말리려고 한 발자국 떼자마자 리버티가 아리아를 끌어안았다.
“아… 사…사랑싸움이었…나…? 하하… 도련님…? 도련님? 괜찮으세요?”
펠릭스는 잠깐 충격에 빠진 것 같더니 아리아의 눈물을 보고 화가 난 사람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젠장, 하다하다 울리기까지 해?”
펠릭스는 아리아드네의 눈물을 보자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다.
“데이빗. 여기서 본 거 모른척 해. 그리고 나가.”
데이빗이 멋쩍은 듯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재빠르게 사라졌다.
펠릭스가 왜 화가 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고 제 주인이 화가 났을 땐, 피하는게 상책임을 펠릭스가 대공성으로 돌아온 2년동안 확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데이빗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애틋한 눈물과 장난을 주고 받던 남매 중 남자가 자리를 정리했다.
그리고는 먼저 정원 후문으로 빠져나가자 아리아는 심호흡을 두번 크게 하더니 눈물 자욱을 장갑으로 닦아낸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참 애틋한 광경이네, 아리아드네 손느.”
“…!”
정문 바로 앞 기둥에서 나타난 펠릭스를 보고 아리아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다.
뒤로 넘어갈 뻔한 아리아의 허리를 감싼 펠릭스의 얼굴이 너무 가까워서 아리아의 얼굴이 빨갛게 변해가기 시작했다.
“눈물의 포옹을 나누고 다른 남자에게 얼굴을 붉힌다니… 당신한테 주어진 비련의 연인 타이틀이 무색하네….”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놀…놀라서 그런거예요…”
아리아가 펠릭스와 멀어지며 드레스 자락을 정리했다.
‘설마 리버티랑 얘기한 거 혹시 들었나?’
아리아는 혹시나 얘기를 듣고 남매가 쌍으로 미쳐버렸단 얘기까지 들을까봐 펠릭스의 눈을 살폈지만 저 까만 심연의 눈동자는 도저히 파악이 불가능했다.
“저…혹시…뭘 보셨나요? 들으셨다거나…?”
“사교계와 온갖 가십지에서 떠들던 비운의 연인의 밀회를 본 것 같은데?”

그놈의 비운의 연인, 비련의 연인, 가련한 운명의 장난, 비극적 남매가 되어버린 연인…
안 그래도 듣기 싫어 죽겠었는데 리버티가 세준인걸 알기까지 하니 이젠 속이 거북해지기 시작했다.
“그런거 아니에요. 눈물을 흘린건 사실이지만 밀회는 아니에요. 저흰 진짜 남매예요.”
“고매하신 손느가 외동 딸 아니었나? 어때? 전 약혼자가 오라버니가 된 기분이?”
"특별해야 하나요? 리버티와 저는 남녀로 그 어떤 감정도 나눠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떠드는 거랑은 다르다구요."
"아까 본 장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
펠릭스는 방금 전에 리버티의 품에 안겨 울지 않았냐면서 아리아에게 말했다.
“몬드 경. 오늘 저 처음 보시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비꼬는거예요?”
아리아는 별로 본 적도 없는 펠릭스가 단편적으로 판단하여 말하는 게 마음에 무척이나 들지 않는다는 듯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말했다.
“처음 안 봤고. 비꼬는건 맞아. 둘이 그러고 있는거 보니 질투가 심하게 나거든.”
단언컨대 아리아는 플레이 하면서 펠릭스와의 호감도 생성은 단 하나도 없었다.
펠릭스는 항상 멀찍이서 파티에 참석하고 사라지기 일쑤였고 아리아는 감히 제국 황실 서열 4위 후계자와 감히 말을 섞을 수도 없었는데 대체 펠릭스가 왜 이러는지 파악이 어려웠다.
생각해보면 몬드 대공가가 손느 공작가가 황태자의 손에 가장 먼저 숙청될 때, 황실에 탄원서를 넣어준 유일한 가문이긴 했다.
하지만 아리아는 그게 몬드 대공성으로 피해있던 리버티의 간청으로 대충 써준 탄원서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탄원서는 손느 저택이 전부 무너져버린 뒤 도착했으니 읽어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리버티 카를로스가 좋은가? 어디가 좋아? 가문은 내가 더 위야.”
“안 좋아해요. 약혼도 애초에 어른들끼리 정한 계약일 뿐이었다고요.”
“그런 것 치곤 영애가 너무 적극적이었지. 물론 난 적극적인 여성이 취향이야.”
펠릭스가 아리아에게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아아 그러시군요. 오늘 파티에 많은 영애들이 왔는데 적극적인 아가씨들을 한번 찾아보지 그러셨어요.”
아리아는 그가 다가오는 것이 살짝 부담스럽게 느껴져 뒷걸음질 치며 말을 이어갔다.
“여기. 내 눈앞에 있는데 굳이 왜 찾아다녀야 해?”
결국 펠릭스가 아리아를 벽까지 몰아부치는데 성공했다.
혹시나 아리아의 머리가 차가운 유리 벽에 부딪힐까봐 손으로 아리아의 뒷머리를 받쳤다.
그리고 아리아의 얼굴을 마주보고 아리아의 번진 눈물 자국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아, 리버티는 꽤 다정한 편이지. 영애는 다정한 남자를 좋아하나?”
아리아의 동공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세나는 남자와의 접촉이 극히 드물었고 모태솔로였고 연애는 할 여유도 없었다. 오직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있었다.

이런 접촉과 거리는 세나의 일생에 한번도 있어본 적이 없었기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 이 감정이 너무 낯설었다.
제국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평가받는 남자가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플러팅을 시전하고 있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심장이 밖으로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몬드 경.”
“펠릭스. 내 이름 알면서 왜 안 불러줘?”
그의 손이 아리아의 턱에 닿았다.
“펠릭스 몬드 경. 지금 뭐하시는거예요? 절 희롱하시는 건가요?”
“울어줘, 아리아드네. 당신의 파란 눈에서, 날 위한 눈물이 흘러 내리는걸 보고 싶어졌어.”
펠릭스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아리아와 펠릭스의 머리 위로 폭죽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다.
팡- 피융- 파파파팡-
오늘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가 시작된 것이다.
아리아의 눈에 화려한 불꽃을 배경삼은 남자가 가득 찼다.
펠릭스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든다는 듯 미소를 지어보였다.
불꽃이 터지는 소리에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는 묻힐 것 같아 다행이라고 아리아는 생각했다.

6. 혼처 자리

아리아는 한참을 불꽃놀이와 남자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리아는 남자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찾고 싶었지만 그의 까만 눈동자는 블랙홀처럼 자신의 마음을 빼앗아가기만 할 뿐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가씨! 아리아 아가씨!”
정원의 후문 쪽에서 리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리아는 이 숨 막히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구원자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환하게 미소 지으며 손까지 흔들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리타! 여기야 여기!”
“아가씨! 얼른 오셔요! 이제 파티가 다 끝나가니 아가씨도 인사드리러 가셔야 한단 말이에요.”
리타가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며 아리아쪽으로 뛰어왔다.
그리고 웬 기둥인줄 알았던 군청색 수트를 차려입은 남성 뒤에서 뿅 하고 튀어나오는 아가씨를 보자 자연스레 시선을 위로 올려 그 남자를 쳐다보았다.
“오…? 아가씨… 새로운 사랑을 찾으셨군요? 그럼 그냥 여기 계속 계세요.”
리타가 펠릭스의 얼굴을 보고 중얼거리며 멍하게 말했다.
“이거봐 아리아드네. 새로운 사랑을 위해 눈물 흘려 줄 생각은 없어?”
펠릭스가 싱긋 웃으며 아리아를 내려다봤다.
“네, 없어요. 가자, 리타.”
리타를 끌고 정원 밖으로 나가는 아리아를 한참동안이나 뒤에서 바라보던 펠릭스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파티를 빠져나갔다.

“뭐… 이정도면 아가씨한테서 확인할 건 다 했으니까.”
펠릭스는 아리아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쳐다보다가 등을 돌렸다
*
아리아의 방은 햇살이 잘 드는 방이었다.
손느(Sonne)는 태양이라는 뜻으로 손느 공작 저택은 황궁 다음으로 태양이 오래 머무는 곳이라는 칭호까지 얻을만큼 환하고 화려했다.
그 덕에 정원에 핀 꽃들은 사시사철 푸르렀고 가끔은 큰 열매도 맺혀 어린 아리아는 그 곳에서 난 열매와 꽃을 잔뜩 실어 리타와 함께 시장에 나가 팔아보기도 했다.
물론, 손느 가문은 문화예술의 집합체답게 제국의 극장, 백화점, 뷰티 살롱 등을 전부 소유하고 있었다.
아리아는 문화예술산업이 더 큰 돈이 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걸 깨달았다.
귀족들만 사용하던 오페라 극장에서 평민들을 위한 연극도 개봉하고, 출신을 가리지 않는 손느예술학교 신진 디자이너들의 등용으로 귀족 뿐만 아니라 평민들 사이에서도 유명인이 되어 유행을 선도하고 있었다.
아리아는 어릴때는 시장에서 꽃을 꺾어 팔다가, 그 꽃으로 향유를 만들어 뷰티 살롱에 팔다가, 문화예술 산업을 이어받아 각종 채널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며 착실하게 돈을 버는 재미를 흠뻑 즐기고 있었다.
자는 동안에도 그녀의 통장 잔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손느 가는 아리아의 노력으로 착실하게 부를 모으고 있었기에 연합가문에 속하지 못하더라도 어느정도는 버틸 수 있었을텐데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가장 첫번째 척결 가문이 되었다.
물론 그 전에 롱스와 파라가 결혼하고 더 커질거라고 생각했던 규모 역시 생각만큼 확장성을 불러오지 못했다.
그저 카를로스 가의 언론사 몇개를 손에 넣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아리아가 롱스 공작의 결혼으로 상심하여 전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칩거할 때, 그녀가 운영하던 한 뷰티 살롱에서 손느 제품을 사용한 고객의 컴플레인이 있었다.
그녀의 향유 브랜드에서 발매한 바디 오일에서 독성 물질이 나왔고 그 제품을 바른 고객이 유산을 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문이었다.
먹는 것도 아니고 몸에 바르는 걸로 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향유 오일이 말이 되는가?
아리아는 대중들도 그만한 판단력이 있다는 판단 아래, 블랙컨슈머라 치부하여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으나, 그 불씨는 더욱 커져 심각한 루머까지 양산해냈다.
사실 아리아 또한, 바디 오일을 사용하다가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 집에 칩거중이라는 둥, 이미 손느 가에서 인체 테스트를 하다가 시체들이 들것에 실려나가는 것을 봤다는 허언들이 쏟아져나왔다.
실제로 그때쯤 아리아의 건강이 안 좋아져 의원이 자주 드나들었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아리아가 죽을 병이라는 말까지 더해져 해괴망측한 소문에 박차를 가했다.

아리아는 실제로 꽤 오래 병상에 누워있어야했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진 평판은 당연히 기껏 일궈놓은 손느의 가업의 도산은 순식간이었다.
안 그래도 황실의 존재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와 온갖 공격들을 받고 있던 황실은 대중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손느 가의 귀족 작위를 박탈하겠다 하더니 결국엔 손느 전체를 척결하기에 이르렀다.
황실은 이왕 손느를 제거하며 강한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북부에서 가져온 기계식 폭탄을 저택 외부에 설치해 터트려 버림으로 손느 일가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 이후로 폭파에 재미를 들인건지 황태자는 제국의 마지막 순간을 폭탄으로 장식해버리며 끝을 냈다.
*
“어우… 눈부셔…”
아리아가 제 머리위로 쏟아지는 강렬한 태양빛을 못 이기겠는지 뒤척이며 일어났다.
처음에 집 지을 때, 이정도로 강렬한 태양 알람시계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돈 들여 통창을 낸 자신의 선택이 오직 심미적 요소만 고려했던 안일한 생각이라 생각하며 눈을 떴다.
“리타…침대에 캐노피라도 달자….정말 뜨거워서 괴로워…”
아리아는 리타가 방에 들어오자 당장 침실 캐노피를 주문했다.
“여름이라 햇빛이 너무 강하긴 하네요. 아가씨 피부 상할지도 모르니까 당장 오늘 달아두라고 시킬게요.”
“응, 고마워. 리타”
“참, 공작님과 공작부인께서는 오늘 아침 해뜨자마자 달달한 신혼여행을 남부로 떠나셔서 일주일 뒤에 돌아오실 예정이에요. 리버티 도련님은 지금 응접실에서 펠릭스 경과 간단한 브런치를 하면서 대화중이세요.”
“내가 잠이 덜 깼나? 펠릭스 경이 여기서 왜 나와?”
‘울어줘, 아리아드네. 당신의 파란 눈에서, 날 위한 눈물이 흘러 내리는걸 보고 싶어졌어.’
‘아니, 뭘 울어달라는거야? 변태 아니야, 진짜?’
까만 눈동자에 잠식 당할 것 같았던 어제의 기억이 선명해지는 기분에 아리아는 잘게 어깨를 떨었다.
“근데요, 아가씨. 펠릭스 경은 아침에 봐도 참 잘 생기셨더라구요? 전 여태껏 리버티 도련님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펠릭스 경은 왕족이라 그런지 뭔가 모를 위압감이 느껴지는 분이시던걸요? 그에 비하면 우리 리버티 도련님은 정말 뽀송한 도련님이시죠!”
리타는 정말로 잘생긴 두 도련님을 보아 신이 난 모양인지 두 눈을 반짝거리고 두 손을 모아 칭송하듯 아리아에게 말하고 있었다.
“하…나 그냥 오늘 방에만 있어야겠다.”
“안돼요. 쉘린님이 그러시는데 오늘은 두 가문이 합쳐진 기념으로 리버티 도련님이랑 여기저기 둘러보고 오라는 공작님 명이 있으셨대요. 오히려 이럴때 밖에 나가서 남매의 모습을 보여주는게 소문 잠재우기에 더 좋다고요.”

“내가 언제부터 아버지 말을 잘 듣는 딸이었다고?”
“쇼핑하러 나가신다 생각하고 갔다오시면 되죠, 뭐! 그리고 그 백화점 라운지에 모여있는 귀족 아줌마들이 아가씨를 얼마나 모욕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난 번에 올라갔다가 정말 전 기절하는 줄 알았다구요. 오늘 제가 제대로 꾸며드릴테니 기를 바짝 누르고 오세요.”
“나도 그 아줌마들 만나기 싫어. 기운이 쏙 빠진단 말이야. 나가지 말자, 제발.”
아리아는 상상만 해도 피곤하다는 듯이 말했다.
“아뇨? 무조건 가셔야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 백화점이 누구 소유인지 전부 잊은 것 같았어요. 얼른 일어나세요 아가씨! 브런치 먹고 아줌마들 콧대를 밟아주러 가자구요! 손느의 힘을 보여 주겠어요.”
어째 아리아 본인보다 더 열정이 넘치는 리타를 보며 아리아는 훈훈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았다. 이전 삶에서는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고 보호를 자처하는 인물이 없었는데 지금은 누가 해를 가한것도 아니고 뒤에서 욕 몇 번 했다고 이렇게 자기 일처럼 화내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래, 리타. 하고 싶은거 다 해줘."
"정말이죠? 오랜만에 실력발휘를 해야겠네요."
실력발휘를 한다던 리타를 말려야했을까,
아리아가 리타를 말리기엔 이미 늦은 시점엔 그녀는 드레스를 3번째 갈아입고 있었다.
*
응접실에서는 리버티와 펠릭스가 서로 아무말도 하지 않은 채 커피만 기울이고 있었다.
평소에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리버티도 펠릭스가 저렇게 침묵하니 답답해서 먼저 말을 건넸다.
“펠릭스. 내가 너와 함께 북부로 올라가겠다고 한 거 말이야. 3개월 정도는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제대로 된 누이의 혼처를 구해주고 떠나는게 좋을 것 같아서”
혼처라는 말에 커피를 내려놓은 펠릭스가 대답을 이어갔다.
“언제 내가 널 데리고 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나? 마침 이번 3개월은 사교계 시즌이니까 아리아의 혼처를 찾으려는건가?”
“응. 어쨌든 아리아를 결혼시키긴 해야하니까. 아리아는 안전한 울타리가 필요해.”
“울타리라….울타리 말고 성은 안 필요하대?”
“성…? 어제부터 실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펠릭스. 네가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었나?”
“니가 알아들을 필요 없는 말이거든. 아, 나도 수도에 3개월간 머무를 예정이야.”
“정말인가? 잘 됐네. 오랜만에 친구랑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북부로 올라갈 때도 같이 가면 되겠네.”
리버티는 정말 공부만 한 걸까, 이렇게 눈치가 너무 없는데 자신이 늘 차석으로 밀린게 더 화가 난다고 생각하는 펠릭스였다.
대체 아리아는 저 자식의 어디가 좋았던걸까.
사실 리버티는 다정다감한 성격이고 누굴 울릴 성격도 못 되는 자식인데 늘 아리아는 리버티 곁에서 제일 잘 운다.

리버티가 아리아의 사랑과 관심, 슬픔마저 다 가진 것 같아 펠릭스는 화가 날 정도로 질투가 났다.
“너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 그리고 나도 바쁠거야. 3개월간 긍정적으로 혼처를 물색해 볼 생각이거든.”
“오, 그래? 펠릭스가 혼처를 찾는다니… 제국의 영애들이 줄을 서겠네.”
“그치? 너도 특별히 줄을 선다면 제일 앞에 세워줄게. 이제 약혼자 아니고 오라비니까 주는 특혜야.”
커피를 마시며 친구가 혼인할 마음을 먹었다는 사실을 축하해주려던 리버티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니까...아까부터 쭉 삐딱하게 나오는게... 펠릭스가 지금 박세나를 좋아하는거야? 그래서 날 견제하는건가?’
리버티는 전혀 그런 기색이 안 보이던 펠릭스가 아리아를 언급하자 당황스러웠다.
‘게임할 때, 북부 대공성에 머물면서도 아리아가 펠릭스와 접점이 있는건 못 봤는데…?’
리버티는 커피를 들던 손을 내려놓으며 펠릭스에게 물었다.
“어? 펠릭스… 지금 우리 누나…아리아 말하는거야?”
“우리…?”
펠릭스의 눈썹이 무섭게 찌그러졌다가 다시 펴졌다.
“아, 아니 이게 입버릇이라… 아리아한테 한번 물어볼게. 자네 혼처자리에 줄 설 생각이 있는지”
펠릭스는 리버티가 아직 아리아를 좋아하기 때문에 단단히 철벽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거슬리는 입버릇이네. 생각이 바뀌었어, 리버티. 날 아리아 혼처 자리에 1번으로 세워.”
7. 선택
리버티는 어안이 벙벙한 채 누이의 혼처를 탐내는 음험한 늑대가 되어버린 제 친구를 쳐다보고 있었다.
‘왕실학교를 다니는 5년내내 나는 아리아와 약혼한 상태였는데… 얜 뭐지?’
“물론 그동안은 니가 약혼자였으니 내가 한 발자국 물러나 있었지만, 이제 너는 아리아 약혼자도 연인도 뭣도 아니잖아. 아리아의 남편자리는 공석이고. 그러니까 나로 추진하라는 얘기야.”
펠릭스는 '뭣도 아니다' 라는 말에 강세를 붙이며 리버티에게 말했다.
“뭣도 아니라니, 하나뿐인 남매인데? 그리고 그건 아리아가 선택해야 하는거지, 내가 추진한다고 곧이 곧대로 할 성격도 아니야.”
“그러니까 니 말은, 아리아가 날 선택하면 된다는거지?”
펠릭스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건 자신있어. 아리아의 방을 보니 예쁜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난 예쁜 편이니까."
펠릭스의 당당한 셀프 외모칭찬에 리버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리고 얘가 원래 이렇게 적극적이었나…?’
리버티의 머릿속에 의문문만 잔뜩 떠다니던 찰나, 응접실 문이 열리고 아리아가 들어왔다.
“좋은 아침…이라고 하기엔 늦었네요. 두 분이서 재밋는 얘기 중이셨나봐요?”

연노랑색 베이비돌 드레스를 입은 아리아가 리버티 옆에 앉으며 인사를 건넸다.
“으음, 아니. 별 얘기 아니었…”
리버티가 그녀의 자리에 쿠션을 치워주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말했다.
“응. 내가 맘 먹고 영애의 혼처 1번이 되기로 했거든.”
“푸웁-“
순식간이었다. 리버티가 바로 앞에 앉은 펠릭스에게 커피를 뿜어버린 것은 정말로 실수였고 순식간이었다.
“야 박세준!!! 경, 괜찮으세요?”
아리아가 리버티의 등짝을 주먹으로 세게 한대 치자 그만 사레가 걸린 리버티는 옆에서 콜록대기까지 하고 있었다.
“콜록-콜록-“
"어머 어떡해... 몬드 경 괜찮으세요?"
아리아는 급하게 테이블 위의 올려둔 펠릭스의 손수건으로 펠릭스의 얼굴을 벅벅 닦아냈다.
“영애가 아주 자상하네. 근데 그 둘 사이의 약혼자 시절 애칭은 내 앞에선 자제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얼굴을 닦던 그녀의 손목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펠릭스가 말했다.
“애칭 아니에요.”
“애칭 아니야! 콜록- 크흡. ”
아리아와 리버티가 동시에 부정하는 모습이 더 가관으로 느껴지는 펠릭스였다.
“둘이 죽이 척척 맞네.”
펠릭스가 대꾸했다.
“비꼬지 마, 세상 어느 연인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주먹으로 등짝을 때려? 확대해석 하지마.”
“맞아요. 누차 말하지만 저희는 진짜 친남매… 수준이에요. 그나저나 펠릭스 경의 손수건과 와이셔츠가 커피 물이 들어버렸네요. 마침 저희 아버지 부탁으로 손느 백화점 시찰에 다녀올 예정이거든요. 저희랑 같이 가시는거 어때요?”
“이거 데이트 신청이야?”
펠릭스가 은근슬쩍 웃으며 물었다.
“아니에요. 가시는 걸로 알고 전 준비하고 내려올게요. 경의 옷은 커피로 물들어 버렸으니 보상으로 제가 옷 하나 다시 사드릴게요.”
아리아가 일어나면서 펠릭스에게 말했다.
“좋아. 가지.”
펠릭스는 속으로 리버티가 커피를 100번도 더 뿜어내도 좋다고 생각했다.
*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 리버티, 펠릭스, 아리아가 나란히 앉아 가고 있었다.
“백화점까지 오래 걸리나?”
“마차로 한 30분정도 걸려요. 어디 들를 곳이 있으신가요?”

아리아가 들를 곳을 마부에게 전해주려 커튼을 걷으려고 했다.
“아니. 그냥 너무 흔들리길래. 영애가 혹여나 멀미할까봐.”
“걱정마. 아리아는 이것보다 더 흔들리게 차를 몰아.”
창밖을 보던 리버티가 질린다는 듯이 말했다.
“어어, 누나!! 앞에 봐 앞에!!”
세나가 첫 중고차를 샀다고 이제 앞으로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주겠다고 하길래 좋다고 옆에 탔던 순간이 기억났다.
‘아찔했지…’
진짜 안전벨트과 보험의 중요성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아리아와 리버티가 동시에 기억이 떠오른 듯 눈이 마주치며 웃었다.
그러자, 펠릭스가 당장이라도 눈에 불을 뿜을 것처럼 아리아를 쳐다보다가 손으로 아리아의 눈을 가려버렸다.
“눈 마주치지마, 아주 둘의 추억에 축복이 끝이 없네.”
영문도 모르고 눈이 가려진 아리아는 눈만 꿈뻑거리고 있었고 그녀의 긴 속눈썹이 펠릭스의 손바닥을 느리게 스치자 펠릭스는 질투가 약간 가라앉는 기분을 느꼈다.
“근데 웬 자동차? 그게 수도에 있어?”
펠릭스가 리버티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 수도에는 없는데… 한번 몰아봤거든! 그치 아리아?”
“어? 응, 맞아요. 제가 리버티한테 졸랐거든요! 옛날에 리버티가 장난 삼아 만들었던 장난감 자동차가 있었어요.”
멋쩍게 웃으며 아리아가 대답하자 펠릭스는 “아, 장난감. 난 또.” 하며 고개를 저었다.
자동차 이야기에 놀란 것이 당연한게 펠릭스는 북부에서 비밀리에 자동차 사업을 진행중에 있었다.
적어도 1년은 지나야 세상에 존재가 알려질 연구와 개발이었는데 자동차 얘기를 하자 정보와 기술이 새어나간 줄 알고 깜짝 놀란 것이다.
북부 사람들은 대부분 장거리를 이동해야했기에 빠르게 이동할 이동수단이 필요했고
마침 왕실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펠릭스가 돌아오자 펠릭스는 곧바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다.
“참, 리버티랑 경이 같은 전공 아니던가요? 리버티가 북부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리버티는 군사무기 쪽에 더 재능이 많지. 유능한 인재인건 사실이야. 그래도 리버티가 싫은건 변함없어.”
말하고 보니 제가 제 입으로 리버티를 칭찬하는 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짜증이 났기에 입을 꾹 다물었다.
‘리버티가 오면 군사무기도 제조도 가능하긴 하겠네.’ 하는 생각을 하며 조금 더 달리자 마차가 멈추고 마부가 도착 종을 울렸다.
*

아리아가 오른쪽엔 펠릭스, 왼쪽엔 리버티를 데리고 백화점에 들어서면서부터 모든 시선이 1층으로 주목됐다.
“역시 백화점 1층 냄새는 너무 좋아”
아리아가 더운 실내에 들어오며 외투를 벗어 한손에 걸치면서 말했다.
“이게 무슨 냄샌데?”
아무 냄새 안나는데 아리아가 또 오바한다고 생각하며 리버티가 반문했다.
“무슨 냄새긴. 돈냄새지.”
아리아는 있는 힘껏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었다.
리버티는 정말이지 못 말린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아리아가 계속 숨을 들이키고 내뱉자 그녀의 가슴이 들렸다내렸다했다.
'실내인데, 외투를 다시 입혀야하나.'
펠릭스는 아리아의 가슴을 빤히 쳐다보고 있던 자신을 자각하고서는 고개를 빠르게 저으며 말했다.
“영애는 돈을 무척이나 좋아하나보네.”
예상했다는 듯이 펠릭스가 아리아를 보며 물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다 더 갖고 싶어서 난리죠. 그리고 돈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하니까요.”
“누가 보면 굉장히 가난했던 줄 알겠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랍니다. 자, 어쨌든. 제국에서 가장 잘생긴 두 도련님이 제 손 안에 있으니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마침, 저희 손느 백화점에 새로 런칭되는 남성복 브랜드가 있거든요.”
피식 웃으며 자조하던 아리아가 금새 두 손을 꼭 모은 채 뒤로 휘리릭 돌아서서는 리버티와 펠릭스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럼, 우리 잘생긴 오라버니들. 예쁜 옷 입으러 가보실까요?”
*
아리아가 사교계의 가장 빛나는 사파이어와 블랙다이아몬드을 동시에 데리고 백화점을 누비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백화점에 사람이 넘쳐나고 있었다.
“이것만 더 입어보면 되는거지? 차라리 커피 묻은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는 게 나을 뻔 했겠어.”
아리아는 골라주는 옷이 그들에게 찰떡같이 잘 받아서 아리아는 자꾸만 입혀보고 싶었다.
펠릭스는 다크톤의 옷들이 잘 받는 반면, 리버티는 화사한 파스텔 톤의 옷들이 잘 어울려 이번 시즌 남성복은 최대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실히 몬드 경께서는 물론 격식과 예의에 맞게 다 챙겨입는 것도 멋지시지만... 오! 이렇게 안경도 쓰고 팔도 걷어부치니 일 잘하는 남자의 정석이시네요."
"일 잘하는 남자 좋아해?"
펠릭스는 그게 아리아의 이상형인가싶어 재빨리 물었다.
"싫어하는 여성이 어딧겠어요? 리버티는 색이 다 옅은 편이라 그런지 같은 계열의 연한 색들을

입히니 더 부드러워 보이네. 특히 가디건이 잘 어울린다. 리버티, 니가 보기엔 어때?"
"뭐가 달라진거야?"
리버티는 팔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말했다.
"여기! 여기! 소재랑 핀턱 디테일이 다르잖아. 으휴... 그냥 넌 주는대로 입어라..."
아리아는 리버티의 행동에 머리를 주먹으로 탁 하고 치면서 대답했다.
"주는대로 입는 남자를 좋아하나..."
펠릭스는 고민이 되는지 한손으로 턱을 괴고서는 중얼거렸다.
"몬드 경, 대체 무슨 말을 중얼거리고 계신거예요? 근데 진짜 둘이 너무 그림같아서 더 입혀보고 싶어요."
"그만."
"그만해."
리버티와 펠릭스가 아리아를 쳐다보며 동시에 말했다.
“아무래도 이번 시즌 대박날 것 같으니 수고하신 경들께 선물로 이 옷들 전부 다 드릴게요.”
“인형놀이에 신났네, 아리아. 동심으로 돌아간 줄 알겠어.”
K남동생의 어린시절에 누나가 입혀주는대로, 꾸며주는대로 군말없이 꾸며지는 소박한 인형놀이가 여기서는 더 화려하게 이어지는 것 같았다.
“옷을 잔뜩 선물 받았으니 내가 밥이라도 한끼 사야하는게 도리인 것 같군. 올해 더이상 옷은 안 사고 안 봐도 될 것 같아.”
펠릭스도 지치긴 매한가지였는지 허기짐을 호소하며 급히 나가려고 했다.
“그럼 나 얼른 이 가디건만 갈아입고 나오도록 할게.”
리버티가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자 아리아는 이제 그만 정리하자는 듯 매니저를 불러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매니저님, 이 옷들 전부 집으로 보내주세요. 저희 나가고 나면 고객들 보는 카탈로그에 리버티가 입은거랑 펠릭스 경이 입은 아이템들 전부 다 표기해두세요. 해당 아이템들은 추가 발주해서 사이즈 별로 재고 넉넉히 준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매니저님.”
아리아의 기분이 하늘로 솟아오르다 못해 훨훨 날아가고 있는 것만 같아 보였다.
펠릭스는 자신이 본 아리아의 모습 중 지금이 제일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 아닌가하고 생각했다.
"영애는 그렇게 좋은가?"
“그럼요, 펠릭스 경."
아리아가 펠릭스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기분도 좋은 김에 제일 비싼걸로 골라서 점심을 먹어야겠군."
저 새침한 볼이 웃음을 머금고 입꼬리를 올리자 펠릭스는 자신의 입꼬리도 씰룩거리는 기분이 들었다.
"밥 안 먹어도 벌써 배부른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도련

님들이 입은 옷들을 남편과 애인에게 입히려고 혈안이 될 거든요. 스타가 된 기분이 어때요?”
아리아가 까치발을 들고 싱긋 웃으며 펠렉스의 귀에 소곤거리자 펠릭스의 얼굴이 붉어졌다.
“간질간질하고 좋아.”
“그쵸? 역시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아요. 경도 즐기게 될 거예요.”
아리아와 펠릭스가 서로 뜨겁게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따가운 햇살이 피부에 닿은 것마냥 훽- 하고 얼굴을 돌렸다.
매니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8. 푸른 장미의 비밀 (1)

올해 사교계 가장 좋은 혼인 대상을 꼽으라면 단연 솔라의 블랙다이아몬드 펠릭스와 왕실학교 최고 사파이어 리버티일 것이다.
물론, 그 둘은 넘볼 수 없는 벽의 존재가 뚜렸했다.
일단 펠릭스는 북부에서 자랐고 왕실학교 5년동안 수도에서 지냈으나 차갑고 냉정한 성정으로 수도 곳곳에 정평이 나 있었다.
게다가 졸업 후 바로 북부로 가버리는 바람에 ‘북부에 꿀 발라놨냐’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중부지역인 수도와 다르게 춥고 축축한 지역인 북부에서 살아와서 그런지 그는 곁에 지나가기만 해도 서늘한 기운이 온 몸을 감싸고 있는 듯 했다.
그런 그가 수도에 내려와 사교계에 3개월간 머물겠다는 얘기는 혼처를 찾겠다는 의지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반면, 리버티는 10년간의 약혼 생활로 ‘남의 떡’ 이미지가 강했는데 어찌됐든 현재는 남의 떡이 아니라 내 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심어주는 남자였다.
명예 하나는 확실히 가지고 있는 집안의 자제고 그의 능력 역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펠릭스와 비교했을 때 그보다 훨씬 부드러운 이미지도 한 몫 했다.
펠릭스는 나무 꼭대기에 달린 별같은 존재라면, 리버티는 사다리만 있으면 딸 수 있을 것 같은 잘 익은 복숭아 같달까.
그동안은 아리아가 사다리를 걷어차버렸으니 언감생심 꿈도 못 꿨지만 지금은 사다리를 갖다대면 내 것이 될 수 도 있지 않은가?
두 사람에게 보이는 일말의 가능성이 제국 영애들의 허파에 봄바람을 잔뜩 집어 넣은 상태였다.
둘 중에 하나만 잡아도 대박 그 이상일 것이라는 것은 모든 제국인들이 동의하는 바였다.
펠릭스가 손느 백화점 VIP라운지 문을 열고 들어오자 갑자기 조용해지며 시선이 한데 모였다.
솔라의 귀족 영애들은 평소엔 모습을 잘 비추지 않는 펠릭스와 리버티가 승마장이나 클럽이 아닌 백화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르르 손느 백화점으로 몰려들었고 평소보다 라운지는 더 북적거렸다.
둘이 나란히 서 있으니 그림이 따로 없었고 벌써 펠릭스와 리버티의 외모 칭찬을 하고 싶어 입이 달싹거리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아리아? 왜 안 들어오고 있어.”
리버티가 아리아의 손목을 끌어오기 전까지 모든 영애들은 잠시나마 저 둘의 옆에 서본 자신들

을 생각했는데 아리아의 등장으로 착각이 와장창 부서졌다.
아리아는 제국 최고의 부자가문의 여식답게 시기와 질투를 한몸에 받는 대상이었지만, 그만큼 아리아가 하는 모든 것이 주목받는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아리아가 착용한 모자, 장갑, 드레스, 구두… 전부 손느 백화점 신진 디자이너들 제품이었고 한번 입고 나오면 우수수 팔려나갔다.
아리아는 솔라 제국의 트렌드를 이끌었고 사실 그게 별로 불편한 적이 없었다.
돈이 되어 좋아했으면 좋아했지, 한번도 저를 동물원 원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후로 생각이 바뀔 것 같았다.
아리아는 사실 라운지에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가기 싫은 마음을 애써 억누른 채 리버티의 손에 이끌려 라운지로 들어섰다.
'내가 이럴줄 알았어…. 이 잘난 도련님들 사이에 끼어있는 것만큼 머리아플 일이 없지…'
다들 오른 손목을 붙잡힌 아리아와 리버티를 한번 보고, 아리아와 펠릭스를 한번 보고 의외의 조합들을 의아해 하고 있었다.
"리버티 경, 여태 한번도 아리아와 저렇게 가까이 서 계신 걸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손목 잡고 계신거 맞아요?"
"어젠 춤도 같이 췄대.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눈빛이 아련해서 미치겠다고 하더라."
"아리아드네 영애는 심지어 울기 직전이었대요."
'발가락 부서지는 줄 알아서 눈물이 고인거겠지.' 하고 생각하며 은근슬쩍 손목을 빼내는 아리아였다.
아리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가서 앉으실까요?" 하고 라운지 매니저 실비아를 쳐다봤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오랜만에 손님들과 오셨네요. 자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비아, 구석 자리로 가자. 제발…"
고개를 푹 숙이고 속삭이는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하는 실비아는 아가씨가 원래 이렇게 귀여운 면이 있었나 하고 생각했다.
'항상 당당하시더니…'
하긴 라운지에서 귀부인들과 영애들이 쿵짝쿵짝 찍어내던 허무맹랑한 소문에 온통 시끄러웠던 걸 생각하면 저런 반응이 당연하다.
실비아는 가장 안쪽 구석자리에 세 사람을 안내하고 반투명 커튼을 쳤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아가씨. 식사는 늘 드시던 코스로 내어드릴게요."
"고마워, 실비아."
커튼이 닫히고 세 사람의 모습이 실루엣으로만 보이자 라운지 사람들은 저런 비밀스러운 공간에 앉아 있는 세 사람의 대화가 더욱 궁금해졌다.
아리아는 당장의 관심을 피하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궁금증을 자아내버렸다.
아리아는 살짝 지친 기색을 내보이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피곤하시죠…? 이정도로 사람들이 모일줄은 저도 몰랐어요. 경과 리버티가 인기가 많은건 알았지만 라운지까지 올라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줄은 몰랐네요."

사람들이 꽉 차는 바람에 세 사람은 백화점 직원용 계단을 사용해 올라오느라 시간이 꽤 걸렸다.
“아리아, 네가 체력이 딸려서 그런 것도 있어. 라운지는 고작 6층인데 3층부터 헐떡거렸잖아.”
리버티가 아리아의 체력을 알만하다는 듯 말했다.
“구두 굽이 높아서 그래. 둘이 너무 크니까 내가 올라가야 눈높이가 맞을거 아니야.”
“키가 커서 미안하군, 손느 영애.”
펠릭스도 웃으며 대꾸하자 아리아는 괜히 말했다 싶은 심통이 나 볼에 바람을 불어넣었다.
‘찔러보고 싶게 생겼네…’하는 생각과 동시에 손가락이 아리아의 얼굴에 닿았다.
“…? 뭐하세요?”
“아…이러면 터지나 싶어서”
펠릭스가 어정쩡하게 검지 손가락을 접었다.
“그…있잖아…내 누이의 연애를 바로 앞에서 지켜봐야하는 내 마음도 좀 챙겨줄래?”
리버티가 멋쩍고 불편하다는 듯이 말했다.
“왜 전 약혼녀의 혼처 1번이 거슬려?”
펠릭스가 리버티를 도전적으로 쳐다보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약혼 얘긴 그만하시죠? 전 진짜 리버티와 약혼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차라리 두 분 다 이번 사교계 시즌에 결혼해버리세요.”
“응. 안 그래도 당신이랑 할 예정이야.”
펠릭스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리아의 얼굴이 화르륵 달아올랐고 리버티는 제 누나의 연애를 직관하는 고통에 시달려 얼굴을 쓸어내렸다.
마침 식사가 들어왔기에 다행이었다.
아리아는 잘린 스테이크 단면 색깔이 자기 얼굴 색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아리아의 걱정과는 달리 식사는 무난하게 끝났다.
펠릭스와 리버티도 10벌 넘는 옷을 갈아입느라 허기가 졌는지 식사를 하면서는 서로 으르렁 거리지 않았다.
물론 펠릭스가 열심히 으르렁 대면 리버티는 아니라고 부정하는 형식이지만 펠릭스는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면서 더욱 날을 세웠다.
“아가씨, 식후 디저트 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들어오는 커튼이 열리는 것 같아 아리아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디저트와 함께 소노마 에프리가 들어왔다.
‘쟨 정말 리버티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오네… 대단하다…’
아리아는 소노마가 새삼 대단스러워 보였다.
“카를로스 경. 오랜만이네요. 게다가 몬드 소공작님과 함께 계실줄은 몰랐어요.”
‘모르긴 뭘 몰라…여기 모르는 사람이 어딧다고…’
아리아는 소모나의 정말 몰랐다는 듯한 말투가 제법 믿음직스러워 그녀의 연기력에 깜빡 넘어갈

뻔 했다.
리버티는 웃으며 “그런가요? 에프리 영애는 여기 어쩐 일인가요?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대답했다.
‘어우…저 자식은 내 동생이지만 참…고자야 고자, 연애고자. 저런 여우짓 하나 구별 못하니? 넌 공학박사가 될 게 아니라 대마법사가 됐어야겠다, 동생아.’
에프리 영애에게 친히 자리까지 내어주는 제 오라버니가 된 동생을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차는 아리아에게 펠릭스가 귓속말을 시작했다.
“왜? 질투나?”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어서 아리아가 왼쪽에 앉아있는 펠릭스를 쳐다보았다.
“그건 또 무슨 이상한 추측인가요?”
“맞잖아. 지금 리버티한테 가자미 눈 뜨고 있으면서… 난 정말 서운해.”
“전 소노마를 쳐다본 거예요. 뭐… 소노마가 마음에 안 드는건 확실해요.”
“왜? 저 영애가 널 괴롭히기라도 했어?”
“그건 아니지만…무척…거슬리게 굴죠?”
“그거봐, 거슬리는 건 다 이유가 있어. 결국 소노마가 리버티한테 알짱거리는게 거슬린다는 거잖아.”
“그게 왜 그 쪽으로 흘러요?”
“난 리버티가 그래서 거슬리거든.”
펠릭스가 아리아의 앞으로 케이크 조각을 밀어주며 말했다.
“허…참나….”
아리아는 이제 설레어야 할 지, 어이가 없어야 할 지 모르겠다.
첫 만남부터 펠릭스는 리버티와 자신의 사이를 끊임없이 질투하는 모양새를 보였고 혼처 1번을 자처하며 자신을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리아는 대체 언제, 어느 지점에서 자신을 좋아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낯설었다.

9. 푸른 장미의 비밀 (2)

“펠릭스 경과 아리아 영애는 많이 친하신가봐요?”
소노마가 아리아와 펠릭스가 귓속말 하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리아와 펠릭스가 다른 답을 동시에 내놓았다.
“하하, 리버티 경과 펠릭스 경은 왕실학교 동창이시니 영애도 두 분과 친한 것이 당연한 일이겠군요. 제가 괜한 걸 물었네요.”
소노마가 미안하다는 듯이 리버티를 보며 이야기 했다.
‘미안한 쪽이 나여야 되는거 아니야? 왜 리버티한테 미안하대?’
아리아는 여전히 저 불여우 같은 소노마가 순진한 제 동생을 꿰어내는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제 파티에서 아리아 영애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복잡했는지 가시가 난 장미처럼 톡 찌르고 가시더라고요.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하긴 10년동안 리버티 경과도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부모님의 결혼이라니 놀라울 일이죠”
소노마는 눈치없이 계속 떠들었다.
“에프리 영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제게도 실례되는 말 같은데요. 10년동안 아리아와 아무 일 없이 우정을 쌓아간게 다행이죠. 남매로 함께하는게 오히려 반가우니까요.”
리버티가 다소 차가운 말투로 소노마에게 말했다.
‘오…아예 똥멍청이는 아니었어…’
제 동생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자 아리아는 다 키웠다는 듯 뿌듯한 표정을 지었고 소노마는 그 모습을 째려보았다.
“그치만, 남매가 되는 바람에 결혼이 파토났잖아요. 남성분들은 결혼이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제국 여성들에게 결혼은 꽤 중요한 일이랍니다. 함께할 동반자를 잃었는데 아리아는 분명…”
소노마가 물러날 수 없다는 듯 말을 이어갔다.
“에프리 영애라고 했나? 아리아드네는 오늘 아침에 동반자가 새로 생겼어.”
펠릭스가 소노마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아리아는 안그래도 큰 눈을 동그랗게 뜨며 펠릭스를 쳐다봤다.
“누가 그래요? 나도 모르는데?”
“영애가 모르긴 왜 몰라? 그래서 나랑 오늘 데이트 나온거잖아. 당신의 새로운 동반자, 펠릭스 몬드랑.”
소노마의 턱은 과장을 보태면 곧 테이블에 닿을 것 같았다.
리버티는 펠릭스가 작정을 했다 생각하면서 등을 소파에 기댔다.
이왕 누나의 연애 직관 1열에 앉아버린 거 재미있게 봐줘야하지 않나 싶었기 때문이다.
그냥 로맨스 드라마 한 편 본다 생각하면 혈육의 로맨스도 덜 거북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소노마는 이 치정의 문란함이 사실이냐는 듯 리버티를 쳐다봤다.
전 약혼녀가 누이가 되어버린 데다가 자신의 친구가 새로이 약혼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상황은 가히 제국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이 될 것이었다.
리버티가 소파에 등을 기대고는 소노마 쪽을 쳐다보지도 않으니 그녀는 벌떡 일어나며 실례했다고 말한 뒤 재빠르게 사라졌다.
아마 커튼을 나가 라운지 테이블에서 저 가벼운 입을 떠들어 댈 게 분명했고 내일 아침이 되면 제국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그들의 얼굴이 실릴 것이다.
“하…저희도 이만 나가시죠.”
아리아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펠릭스도 리버티도 일어나기 위해 겉옷을 챙겨 입었다.
*
아리아는 자신을 생활력이 강하고 기가 드센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비록 리버티보다 똑똑하지 못해 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이다.
근데 왜 여기서의 자신은 펠릭스란 남자 하나에게 쩔쩔매는 것이며 그와 함께 있으면 기가 쭉쭉 빨리는 기분이 드는걸까.
“오늘 여러모로 두 분께 고마웠어요. 전 아버지 대신 집무실에 잠깐 들려야해서 먼저 일어날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리아는 두 남자에게 인사하고 라운지를 빠져나가 백화점 집무실에 들어섰다.
“아가씨, 공작님 대신 서명해야하실 서류입니다. 별건 아니고 블루로즈 신제품 런칭 계획안과 이번에 극장에 개봉하는 연극이 오페라 2편, 일반연극 1편이 있는데 해당 무대인사 참석여부를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비서 쉐어가 다가와 아리아에게 서류들을 건넸다.
“블루로즈 신제품? 그 새로운 향유 말하는건가?”
“네. 블루로즈 원료를 새로 배합해서 리뉴얼한 제품입니다. 원래도 스테디셀러여서 마케팅 문구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이거였다. 안 그래도 안좋은 소문에 불을 부은 기름.
“성분에 이상 없는거 맞지?”
“그럼요. 저희 전직원 테스트 해봤고 아가씨께서도 이미 반년 넘게 사용중이시잖아요. 아가씨한테서 향유 냄새가 진하게 나서 이미 블루로즈 쪽에 온갖 문의가 쇄도한대요. 아가씨가 지나가면 너무 좋은 냄새가 난다면서요.”
그때의 그 허무맹랑한 소문은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소문이었다.
아리아는 이번엔 방 안에 칩거해서 모습을 숨길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확실한 진위를 밝혀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혹시 리뉴얼 된 이후에 고객 컴플레인 같은거 들어오면 말해줘. 그리고 마케팅 문구는… 생각해보고 집무실에서 나가기 전에 말해줄게. 그리고 무대인사는 다 참석해야겠어. 시즌 옷들이 너무 많이 나와잖아. 사교계 시즌이니까 물 들어올때 노 저어야해.”
“네, 아가씨. 그럼 서류들 읽어보시고 불러주세요.”
쉐어가 아리아를 위한 캐모마일 티를 한 잔 내어주고서는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블루로즈 향유 리뉴얼 계획서]
블루로즈… 그녀의 저택은 그녀의 어머니와 그녀의 생일이 5월이란 이유로 장미가 넘쳐났다.
그래서 그녀가 처음 시장에 내다 판 꽃도 장미였다.
귀한 아가씨가 장미를 꺾느라 손을 가시에 찔려 성한 날이 없었는데도 장미 한 송이, 한 다발씩 파는게 좋았다.
특히, 하얀 장미를 꺾어 정원에서 그림 그리는 어머니가 쓰던 물통 옆에 꽂아두었을 때, 장미 꽃잎 색깔이 하얀 색에서 푸르게 변하는 것을 보고 아리아는 ‘드디어 희귀템인 파란장미를 얻었다’면서 키보드를 내리쳤었다.
파란 장미 한 송이는 하얀 장미 한 송이의 열배의 가격이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아리아는 하얀 장미를 꺾어 물감에 담궈 푸른 장미로 변화시켰다.

여태 그렇게 푸른 장미를 생산하고 그 꽃으로 염료와 성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최근 연구소에서 빨간 장미와 검은 장미의 배합을 통해 파란 장미를 개발하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연구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일부 공장에서 교배를 시작했고 훨씬 큰 파란 장미 재배에 성공하자 일부 품목의 성분을 새로운 파란장미로 대체하기로 결정했고 그 첫번째 상품이 바로 이 향유오일이 될 예정이었다.
“이걸 성공해야 앞으로 손느도 살아남을거야. 이걸 넘어서면 아마 더 큰 성공을 하겠지. 반드시 성공해야 돼.”
아리아는 계획서를 찬찬히 읽어보며 중얼거렸다.
‘ … … 노란 장미와 분홍 장미와 다르게 서늘한 온도(상온 3~9도)에서 자라는 빨간 장미와 검은 장미를 교배 상자에 두고 3일정도 지나면 새싹이 자라남. 싹이 자라 개화하기 까지는 약 14일이 소요됨. 염료 염색을 통한 장미와 교배 장미의 성분을 비교했을 때, 자연 교배된 새 파란 장미 쪽이 화장품 염료와 충돌이 더욱 적음. 원제품 향유는 방부 성분을 따로 첨가하여 개봉 후 사용기간이 12개월이었으나 신제품 장미 향유 오일의 경우, 방부 성분을 따로 첨가하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사용을 권고함. 방부 성분을 제외하는 이유는 친환경을 중시하는 사교계 문화에 발맞추어 타사 제품들도 방부 성분을 빼고 빠른 사용을 사용자에게 권장하여 오히려 판매 사이클을 높이는 추세이기 때문….’
아리아는 신 블루로즈 향유 계획서를 차근차근 읽어나가다가 아침부터 너무 많은 일정을 소화한 탓인지 눈이 점점 감겨와 의자에 머리를 기댔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처음 파란 장미를 시장에 리타와 함께 팔러 갔을 때 만났던 고양이같은 귀여운 꼬마가 있었는데… 걔가 그 장미를 다 사준 덕분에 오르골도 사고…걘 진짜 누굴까? 진짜 귀엽게 생겼었는데…”
아리아는 밀려오는 잠을 떨치려고 과거를 회상했다.
*
“리타! 그거 잘 들고 내려와야 해! 파란 장미잖아, 꽃 100송이 파는것보다 그거 10송이 파는게 더 이득이야.”
수레에 장미를 가득 옮겨 담는 어린 아리아가 리타에게 말했다.
“아가씨 방에서 장미 냄새가 진동을 하던 일주일을 생각하면 제가 더 빨리 팔아버리고 싶어요,”
리타는 실제로 일주일내내 흰 장미에 파묻혀 지내 장미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픈 기분이었다.
“우리 오늘은 해 지기전에 돌아오자. 이거 다 팔면 내가 리타, 네가 원하던 머리장식 사줄게! 마침 나도 갖고 싶은 게 생겼거든.”
아리아가 자신만만하게 가슴팍을 조그만 주먹으로 통통 쳤다.
“가끔 아가씨를 보면 아가씨가 손느 영애인걸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사면 되지 굳이 이 고생을 왜 하시냐구요…”
“어머니께 드릴 선물인데 당연히 내 손으로 직접! 벌어서 사드리면 어머니가 평생 가지고 계실 것 같아. 의원 말이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대. 내가 산 직접 샀다고 하면 아까워서라도 다시 병상에서 일어나실거야!”

아리아는 호언장담하며 당당하게 마차에 올라탔다.

*

마차는 40여분간 달려 시장에 도착했다.

아리아는 오늘 수레를 어디다가 둘까 고민하다가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오늘은 초콜릿데이 전 날이니 사람들이 제과점 앞에 많이 올거야. 연인들의 심리를 공략해야겠다. 가자.”

아리아가 앞장 서서 수레를 끌고 제과점 앞에 도착했다.

“안녕, 프레리! 오늘은 프레리네 가게 앞에 있어도 되지? 자릿세로 크로아상 4개 사갈게!”

요즘 시장에는 아리아드네 손느, 저 꼬마 아가씨의 수레가 어디 위치하는지가 큰 관심사였다. 저 꼬마 귀족 아가씨는 사업 수완이 꽤 좋아서 수레가 있는 가게는 하루 최고매출을 갱신했기 때문이다.

요즘 들쑥날쑥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던 프레리는 아가씨의 수레가 자신의 가게 앞에 위치하자 쾌재를 불렀다.

“그럼요. 아가씨. 서비스로 초콜릿 2개 더 얹어드릴게요.”

“자 여기! 돈! 좋은 거래였어. 프레리 근데 초콜릿 몇 박스 만들었어?”

“요즘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서 15박스정도만 만들었어요.”

“뭐? 프레리 바보야…? 내일이 초콜릿데이잖아! 아마 퇴근시간쯤 되면 제국 사람들이 초콜릿이란 초콜릿은 다 털어갈걸? 지금이 오전이니까 당장 들어가서 초콜릿을 닥치는 대로 만들어! 가게는 리타한테 맡기고!”

“아…초콜릿 데이….”

프레리는 생각도 못했다는 듯 말했다.

“프레리는 장사의 기본이 안 되어있어. 오늘 프레리가 초콜릿을 팔면 난 꽃을 팔거야. 오늘 프레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 얼른 만들러 가!”

프레리는 허겁지겁 주방으로 들어가 초콜릿을 만들기 시작했다.

10. 푸른 장미의 비밀 (3)

“리타, 오늘 프레리 가게를 좀 도와줘. 꽃은 내가 직접 팔게”

아리아가 리타가 옮기는 꽃병을 건네 받으며 말했다.

“아가씨 혼자 어떻게 둬요.”

리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안된다는 제스처를 표시했다.

“괜찮아, 유리창 바로 앞에 있을거야.”

“그럼 진짜 바로 앞에 계셔야 돼요?”

“얼른 들어가.”

아리아는 리타를 들여보내고 수레 옆 의자에 앉아 장미를 팔기 시작했다.

“아가씨 오늘은 여기 계시네요.”

인자한 미소를 띈 채, 걸어온 사람은 시장에서 작은 수제 비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키츠모였다.

“응. 이번엔 프레리야. 저번에 키츠모네에 갔으니 다음을 기다려줘.”
“하하…요즘 아가씨가 시장의 행운의 여신이군요. 새 장미가 들어왔네요?”
키츠모는 지난번 이 꼬마 귀족 아가씨가 자신의 가게 앞에 자리잡고 뽈뽈거리며 꽃을 팔던 모습을 회상했다.
“응! 푸른 장미야! 정말 예쁘지?”
아리아는 허리춤에 손을 올리며 뿌듯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네요…그런데 푸른장미는 20송이밖에 없네요?”
키츠모는 아리아에게 시선을 옮기며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응… 만들기 어렵거든…”
“그렇군요. 하긴 파란 장미는 생전 처음보는 것 같아요. 그럼 한 송이만 주시겠어요? 아가씨한테서 샀다고 하면 부인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서요.”
“역시 키츠모는 보는 눈이 좋아.”
장미 한 송이를 판 아리아는 키츠모를 칭찬하며 “여기저기 소문내줘!” 하고 돌아가는 키츠모에게 소리쳤다.
오후내내 아리아는 정말 열심히 장미를 팔았다.
장미를 산 사람에게 내일이 초콜렛데이니 꽃과 함께 고백하라는 얘기도 전하자 꽃과 초콜렛은 불티나게 팔렸다.
“어휴 정신없어. 근데 푸른 장미가 너무 비싼가? 이것만 남았네”
아리아는 반정도 남은 푸른 장미를 보며 가격을 낮출까도 고민했지만 형평성도 있고 자신의 노력이 들어간 장미인데 가격을 깎을 순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이제 곧 해가 질 시간인데…오르골이 50만벨, 리타 머리장식이 10만벨이면 아직 10만벨이 모자라니까 이 꽃들 무조건 다 팔아야돼. 리타가 항상 도와주는데 내 것 살 돈만 벌었다고 입 싹 닫을 수는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잠깐 쉬려고 의자에 앉으려는 찰나, 발 밑에 검은 새 한 마리와 눈이 마주쳤다.
평소 새 공포증이 심하게 있던 아리아는 소리를 꽥- 하고 지르며 팔을 휘저으며 뒤로 넘어졌다.
그 덕에 수레는 쓰러졌고 푸른 장미는 화분들에 깔려서 대부분 뭉개져버렸다.
아리아는 넘어지면서 상처가 난줄도 모르고 벌떡 일어나 꽃을 살폈지만 멀쩡한 푸른 장미는 2송이밖에 건지지 못했다.
“아…어떡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꽃을 쥐던 아리아는 당장에 그 새를 잡아 튀겨 먹기라도 해야겠다는듯이 주변을 살폈다.
그러자 멀리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고 검은 털옷을 입은 남자애 하나가 두리번 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왔다.
“혹시 여기서 새 한 마리 못 봤니?”
검은 털뭉치 같은 외투를 걸치고서 까맣고 반짝이는 눈을 가진 남자아이가 넘어진 아리아를 일으켜주며 말했다.

“새? 그 검은 새가 혹시 니 새야?”
아리아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다가 고개를 번쩍 들며 물었다.
“응…집에서부터 키우던 새인데 새장을 열고 탈출해버렸어.”
‘오호라. 니 새란 말이지? 넘어지긴 내가 넘어졌지만 니 새로 인해 벌어진 이 꼴을 좀 보렴’
아리아는 푸른 물을 뒤집어 쓰고 팔 곳곳이 까진 채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얘한테 다 팔아야겠다.’
“사실 내가 그 새를 보고 수레를 다 쏟아버렸거든. 아직 덜 팔았는데 망가져버렸어…이대로 돌아가면 목표치 달성에 실패해서 혼날거야…”
아리아는 동정심 유발 작전을 실행했다. 자신의 또래로 보이니까 분명 제대로 먹힐 것이다.
“넘어진건 넌데 왜…. 아아 그래서 니 꼴이 지금 이런거구나… 내 새한테 놀란거니 내가 미안해… 혹시 이거 다 얼마야?”
검은 털옷을 입은 남자아이는 넘어지긴 자신이 넘어져놓고 자신을 올려다보는 상황에 당황했지만 자신보다 한뼘이나 작은 여자아이가 큰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10만벨이야.”
아리아는 역시 동정심 유발 작전이 통했음에 쾌재를 불렀다.
“꽤…비싸네?”
검은 털옷 남자아이는 10만벨을 건네며 말했다.
“응! 내가 일주일이나 고생해서 만든 장미거든. 아마 제국 어디서도 볼 수 없을거야. 이게 최초거든.”
아리아는 10만벨을 한꺼번에 팔았으니 이보다 더한 운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오르골 살 수 있겠다. 고마워.”
아리아는 억지를 부리긴했지만 꽃을 전부 사준 이 아이에게 고마웠다.
“대신 비싼 꽃값 받았으니까 니 새를 같이 찾아줄게. 대신 내가 새를 무서워하니까 같이 찾는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발견해도 잡지 못하잖아.”
아리아는 동정심 유발로 꽃을 판게 내심 찔려서 새를 찾는 것을 도와주기로 했다.
“고마워. 여기서 봤으니 멀리 가진 못 했을거야. 그래도 나름 말 잘 듣는 애완동물이거든.”
아리아는 검은 털옷의 남자아이와 골목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참을 둘러보아도 새는 무슨 깃털 하나 보이지 않았다.
두 갈래의 길이 나왔고 왼쪽으로 가면 프레리의 가게 오른쪽으로 가면 호크니의 골동품 가게가 나왔다.
“혹시 모르니까 너는 아까 프레리의 가게 앞으로 가봐. 그 까마귀가 말 잘듣는 새면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잖아”
“까마귀 아니야. 엄연히 블랙이란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까마귀. 난 여기로 갔다가 갈게!”
아리아는 호크니의 골동품 가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하 이 망할 까마귀는 대체 어디 있는거야. 괜히 찾아준다고 그랬나.’

까마귀가 도저히 보이지 않아 후회하던 찰나 호크니의 골동품 가게 앞 매대에서 큐빅 목걸이를 부리로 만지작 거리는 까마귀를 발견했다.
“어…어어…까마귀 저거….”
아리아는 당황해서 좌우를 둘러봤다.
큰 소리를 내면 까마귀가 다시 날아갈 것 같고 자신이 몰래 다가가 잡을 용기는 나지 않았기때문이다.
주위를 둘러보자 의상실에서 버린 것 같은 천 보자기가 보였다.
‘이정도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리아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천 보자기를 주워 활짝 펼친 채 까마귀에게 다가갔다.
다행히 반짝이는 큐빅에 정신이 팔린 까마귀는 본능이 둔해진 것 같아 보였다.
“으아아아악!!!!!!”
아리아는 너무 무서웠지만 살금살금 다가가 보자기로 까마귀를 덮쳤다.
푸드덕-. 푸드덕-. 까악-.
“잡…잡았다!!!”
*
“흐어어 미안해…네 주인한테 가야된단 말이야. 제발 좀 그만 푸드덕 거려줘…”
보자기로 까마귀를 잡은 아리아는 순식간에 보자기를 꽁꽁 묶어 나뭇가지로 조심히 들어 프레리 가게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엉성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점점 까마귀의 몸부림이 심해지는 것 같았다.
“아 알았어. 차라리 빨리 가자. 뛸게 뛸게.”
아리아는 차라리 뛰는게 낫겠다 싶어서 나뭇가지를 꼭 쥔 채 달리기 시작했다.
“으아아아아아!!”
어디선가 엄청난 기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검은 털옷을 입은 펠릭스는 해가 저물어 가로등이 켜진 프레리 가게 앞에 서서 아까 그 여자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자아이의 친구인지 수레 앞을 서성이며 손톱을 물어뜯는 한 여자아이가 기합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아가씨!!” 며 달려갔다.
리타를 발견한 아리아는 구원의 손길을 만난 듯 주저 앉았다.
“아리아 아가씨! 이게 다 뭐예요! 어디갔다 오셨어요!”
“흐어, 리타. 이거 좀 받아줘. 이거…새야…”
“네? 새요? 아가씨가 새를 잡았어요?”
아리아의 새 공포증은 생각보다 심해서 어쩌다 저택에 새가 들어온 날이면 잡아 쫓아낼 때까지 절대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으응…이거 빨리 쟤한테 줘…와… 나 다시는 동정심 그런거 안해…”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자신에게 푸드덕 거리는 보자기를 건네는 아리아에게서 보자기를 넘겨받아 검은 털옷을 입은 채 서 있는 남자아이에게 다가갔다.

“이거 혹시 도련님 새일까요…?”
“그…그런 것 같네…고마워.”
펠릭스가 보자기를 넘겨 받으며 말했다.
어느새 아리아가 수레 쪽으로 다가왔다.
“와…나 진짜 너무 무서웠잖아…새까지 잡았으니 나한테 더이상 무서울 것은 없어…아 아니다, 내가 10만벨에 이 고생을 했으니 돈이 제일 무섭구나…”
아리아는 넋이 빠진 채로 수레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블랙을 찾아줘서 고마워.”
펠릭스가 다시 한번 아리아에게 감사를 전했다.
“아가씨, 이제 가야될 것 같아요. 곧 보석가게 문도 닫을거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리타가 보채는 소리에 아리아는 “가야지!” 하며벌떡 일어났다.
‘가기 전에…”
아리아는 멀쩡한 장미 두 송이를 잽싸게 엮더니 화관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남자아이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었다.
“예쁘네. 잘가. 다음엔 새장 잘 챙기고.”
펠릭스는 푸드덕 거리는 보자기를 품에 꼭 안은 채 얼이 빠진 표정을 하고서는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아리아를 바라봤다.
두근거리는 심장소리가 푸드덕 거리는 블랙의 날개짓 소리에 겹쳐 들렸다.
*
아리아와 리타는 오늘 번 돈으로 두둑한 선물을 쥐고 마차에 탔다.
아리아는 어머니를 위한 발레리나 오르골을 샀고, 리타는 갖고 싶었던 머리 장식과 하루 일당을 프레리에게 받았기에 주머니가 아주 두둑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지? 어머니는 내가 발레 하는 걸 좋아하시거든.”
“맞아요. 부인께서 아가씨가 춤 추는걸 보시면서 곧 날아오르는 거 아니냐면서 웃으시거든요.”
“정말? 어머니한테 잘 보일 수 있게 더 높이 뛰어야겠네.”
어린 두 소녀는 키득거리는 수다를 떨면서 저택 앞에 도착했다.
마부가 도착 종을 울리고 아리아가 마차에서 내리자 왜인지 어수선한 저택 분위기에 생경한 느낌을 받았다.
“아이고 아가씨!!!! 어디갔다 오셨어요!!!”
쉘린이 아리아에게 뛰쳐오며 말했다.
“왜? 무슨 일 있어? 나 오늘 시장에 가서 장미를 팔았거든, 이거 봐. 어머니께 주려고 오르골도…”
아리아가 포장지에 돌돌 말은 오르골을 보여주려 하자 쉘린이 눈물이 가득한 채, 아리아를 꼭 껴안았다.
“아가씨. 얼른 마님을 보러가세요. 시간이 없어요.”
쿵-.

아리아는 오르골을 떨어뜨리고서는 손느 공작 부인 방으로 허겁지겁 뛰어올라갔다.
“어머니!!!!!!!”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장미따위를 팔러 시장에 나가지 않았을텐데.
11. 푸른 장미의 비밀 (4)
아리아는 어머니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면서 아리아는 안된다고만 중얼거리면서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렸다.
"안돼...안돼요, 어머니...가지마세요..."
손느 공작 부인은 어린 딸의 얼굴을 매만지면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우리 예쁜 아가. 울지마. 엄만 괜찮단다.”
“안 괜찮잖아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드리려고 장미도 팔고, 오르골도… 오르골도…”
아리아는 오르골을 찾으려는 듯 옷을 매만졌다.
공작 부인 해리는 두리번 거리는 아리아와 상처난 손을 붙잡고 힘겹게 말했다.
“고마워, 우리 아가. 우리 아리아는… 나를 닮아 장미를 아주 좋아하는…. 장미처럼 아름다운 천사님이야…. 아리아, 엄마가 미안해…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니까… 외로워 하지마.”
힘겹게 딸을 쳐다보며 말한 해리는 고개를 돌려 롱스를 바라보았다.
"롱스, 아리아를 잘 부탁해요..."
"해리...걱정하지마..."
롱스는 해리의 손을 잡고 해리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말했다.
"당신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당신은 사랑했어요... 다음엔 나도 당신처럼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날게, 그때 다시 만나요..."
해리는 그와중에도 희미하게 웃어보이며 롱스와 눈을 마주쳤다.
지금 이 장면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롱스와 해리, 아리아는 차오르는 눈물에 시야가 흐려지는 것도 잊은 채 서로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롱...스...아리...아...슬퍼...하지마..."
해리는 힘겹게 마지막 말을 내뱉고서는 한 손에는 다정했던 남편 롱스의 손을, 한 손에는 눈물로 얼룩진 천사같은 딸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여보…!!”
"어....엄마아아아!!!!"
아리아와 롱스의 외침과 울음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울 뿐이었다.
그날 밤, 손느의 태양이라고 불리던 해리 손느는 지평선 아래에 잠들었다.
그 이후로, 아리아는 몇날 며칠을 울며 보냈다.
저택 사용인들은 단 한번도 본 적 없는 손느 공작가의 가라 앉은 슬픔에 동화되어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었다.
*
그 해, 늦겨울은 유독 추웠고 기다리던 봄은 끝내 오지 않았다.
해리 손느 공작부인의 장례식에는 많은 조문객들이 방문했다.

모두 어린 딸만 남겨두고 갔을 해리를 안타까워했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어린 딸을 앞으로 혼자 보살펴야 할 롱스에게는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아리아는 어머니의 관 앞에서 울다 아버지의 무릎에 쓰러져 잠들기를 반복했다.
롱스는 그런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겨주며 영면한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해리. 우리 아리아는 내가 지켜줄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었다면 해리 당신도 더 튼튼히 지켜줬을텐데…'
생각에 잠겨있는 롱스 공작 옆으로 알베르토 카를로스 공작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넸다.
"또 천사 한 분이 하늘로 가셨네요."
롱스는 카를로스 공작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알베르토는 영면한 해리의 관으로 다가가 한때 손느의 태양같은 따스함을 가졌었던, 이제는 차가워진 그녀의 손을 잡아보았다.
"롱스. 우리가 이렇게 엇갈리지 않았다면…해리는 더 오래 살 수 있었을까?"
"알베르…우린 최선을 다했어."
그런 생각은 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기에 롱스는 알베르토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다.
"그래…최선이었지"
과거를 회상하던 알베르토가 자조했다.
알베르토가 롱스의 곁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아 벽에 걸린 십자가를 허망하게 바라모며 말을 이어갔다.
"롱스, 난 그 대단한 귀족가문의 언약을 깰 만큼 용기가 있었다면 하고 늘 자책했어. 10년 전 우리의 잘못된 약혼을 바로 잡을 수만 있었다면…그랬다면 달라졌을까? 난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우리 넷 중에 자책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결국 우린 안정된 생활을 찾았고 이런 보물들도 얻게 됐잖아. 난 우리가 일군 값진 희생으로 생각하고 싶어"
롱스는 곤히 자고 있는 아리아의 뺨을 톡톡 차며 말했다.
"그치… 많은 것들을 손에 쥐었지… 만약 덜 갖는 대신 누구 하나라도 용기를 냈더라면 전부 제자리를 쉽게 찾아갈 수 있었을텐데."
롱스와 알베르토는 동시에 쓰게 웃었다.
"으음-"
아리아가 좁은 의자가 불편했는지 몸을 뒤척였다.
그러자 롱스는 딸을 번쩍 품에 안아들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알베르토, 있잖아. 해리는 나와 정말 좋은 친구였어. 그리고 꽤 오래 널 보고싶어했어. 우리가 함께 웃고 놀던 그 때는 해리와 나의 언제나의 이야깃거리였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금방 가버리지 말고 해리를 오래 보고 가줘."
롱스는 목이 따가워짐을 느꼈지만 아리아를 꼭 끌어안고 뒤돌아섰다.
"롱스."
그런 그를 따라 일어나 알베르토가 롱스의 어깨를 붙잡았다.

“우리 리버티랑 자네 딸, 아리아 말이야. 약혼 시키자.”
딸을 품에 꼭 안은 롱스의 흔들리는 눈빛과 알베르토의 결연한 눈동자가 마주쳤다.
*
해리가 세상을 떠난지 거진 일주일이 되었다.
아리아는 해리가 없어도 세상은 똑같이 해가 뜨고 해가 졌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웠다.
처음엔 울기만 하던 아리아는 사흘즈음 지나고 나니, 아리아는 진짜로 더이상 해리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쪼그려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던 아리아를 쉘린이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다가갔다.
“아가씨. 추운데 안 들어가실래요?”
“추우니까 하늘이 맑아.”
“그러게요. 오늘은 하늘이 참 맑네요?”
“참 이상해. 제국의 겨울은 따뜻하면 안개가 끼고 추우면 하늘이 맑잖아.”
“아가씨는 어떤게 좋으세요?”
“난…차라리 추워서 맑은게 좋아. 겨울을 따뜻해봤자 어차피 추울 뿐이니까.”
쉘린은 어머니를 떠나보낸 어린 아가씨의 동그란 뒷통수를 쓰다듬었다.
“그만 들어갈래. 추운 것 같아.”
아리아는 변덕을 부리듯 벌떡 일어났다.
마침 어디선가 검은 새 한 마리가 저택을 빙빙 돌고 있었다.
까악- 까악-
검은 새를 보자 아리아는 쉘린을 돌아봤다.
“있잖아, 쉘린.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진짜 신기한 경험이 많았어. 돌아와서 어머니께 신기한 일이 있었다고 말하려고 했어. 그리고 내가 어떤 아이한테 도망간 새 한 마리를 잡아다 줬다고 자랑하려고 했어. 나 이제 어른이라고 자랑하려고…”
아리아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쉘린을 올려다보았다.
쉘린은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다가 도저히 참기 힘들었는지 무릎을 꿇고 아리아를 꼭 껴안았다.
“아가씨. 어른이 된 기분을 느끼셨군요? 좋으셨겠어요. 근데 아가씨, 누구나 싫어도 어른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슬프면 마음껏 울어도 돼요.”
아리아는 소리없이 눈물만 줄줄 흘렸다.
‘엄마’ 하고 찾으면 해리가 ‘우리 강아지!’ 하고 안아줄 것 같은데 해리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굳이 그 사실을 확인해서 더 아프고 싶지 않았다.
한참을 울어서 눈이 따갑기에 아리아가 눈을 비볐다.
그러자, 맑아진 시야로 나무 뒤에 숨은 털뭉치가 보였다.
아리아는 검은 새와 검은 털옷의 연계성은 그 때, 그 시장에서의 남자아이라는 생각에 아리아는 아이를 붙잡으려 쉘린의 품에서 벗어나 나무 쪽으로 달려갔다.
“야!! 거기 털뭉치!!!”
털뭉치는 뒤돌아볼 생각도 안하고 저택 정문을 빠져나갔다.

아리아도 있는 힘껏 뛰었지만, 저택 밖 수많은 마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 대체 어느 방향으로 사라졌는지 알 길이 없었다.
“야아 털뭉치야! 아이씨, 이름정도는 알아둘걸.”
아리아는 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검은 털옷의 남자아이를 찾았다.
마차를 한 10개쯤 뒤져 보았을까,
사흘째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울기만 한 아리아의 체력으로는 더이상 서 있을 힘도 없었다.
“에휴…진짜 어디로 갔냐. 이 털뭉치 인간아…”
길 한 복판에 서 있던 아리아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주먹으로 손바닥을 치더니 휘파람을 불었다.
“휘이익-! 블랙! 휘이익-!”
‘그래! 털뭉치를 못 찾으면 새를 찾으면 되잖아!’
아리아는 정말 천재같다고 생각하면서 신나게 휘파람을 부느라 자신이 길 한 중간에 서 있다는 사실도,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마차가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어…어어…거기 피해!!!”
마차의 마부가 말 고삐를 세게 당기며 아리아에게 소리쳤다.
아리아는 그제서야 마차 쪽을 쳐다봤으나 온 몸이 굳어버렸다.
히이잉-!
마부가 말의 고삐를 힘껏 잡아 당겼지만 속도가 줄어들지 않자 아리아와 마부는 눈을 질끈 감았다.
퍽-
누군가 아리아의 몸을 엄청난 힘으로 밀쳐내 저택 벽에 어깨가 부딪혔다.
“아야….”
아리아는 부딪힌 어깨를 부여잡고 눈을 떳다.
“아가씨이!!!”
쉘린이 뛰쳐나와 정문 앞으로 밀쳐진 아리아를 일으켜 세웠다.
아리아는 자신이 크게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느 사실에 어안이 벙벙해져 주위를 둘러보았고 길 반대편으로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검은 털옷의 아이를 보았다.
“야! 털…!”
아리아가 소리치려했으나 마차에서 고운 여인과 뾰루퉁한 남자아이가 내렸다.
“어머. 괜찮니? 어디 다친 곳은 없어?”
오렌지 빛깔의 머리를 한 귀부인이 마차에서 내려 아리아를 여기저기 살폈다.
"어...네...괜찮아요..."
아리아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다친 곳이 없어 다행이구나. 조심해야지. 근데 너는 누구니?”
“아리아드네 손느….예요….”
눈으로는 여전히 털옷 인간을 찾았지만 커다란 마차와 귀부인의 치마에 가려져 길 건너편이 보

이지 않았다.
아리아의 이름을 듣자, 귀부인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박수를 쳤다.
“그렇구나! 네가 아리아구나! 여긴 네 약혼자가 될 리버티 카를로스란다!”
“아, 네… 네???”
아리아가 대충 대꾸하다가 약혼자라는 단어에 놀라 파라 카를로스 공작부인을 올려다 보았다.
‘대체 누가 약혼자를 장례식장에서 소개하니?’
아리아는 황당하다는 듯이 귀부인과 귀부인 뒤에 서 있는 자신의 약혼자를 번갈아 쳐다봤다.
그렇게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은 내키지 않은 약혼자의 등장으로 마무리 되었다.
*
‘에휴…한동안 장미따위는 꼴도 보기 싫었지…’ 하고 아리아가 중얼거렸다.
시계를 보니 백화점 직원들도 전부 퇴근할 시간이었다.
“퇴근 시간을 잘 지켜줘야 훌륭한 오너 아니겠어?”
아리아는 퇴근시간 없이 일했던 과거의 세나를 기억하며 벌떡 일어났다.
“아이고, 가자!” 하며 아리아가 집무실 문을 열었다.
그러자 갑자기 커다란 푸른 장미 다발이 제 눈 앞에 보였다.
“펠릭스 몬드 경? 아까 한참 전에 돌아간 거 아니었어요?”
아리아는 와인색 수트를 입고 검은 머릿칼과 이글거리는 눈동자를 한 채, 푸른 장미 다발을 들고 서 있는 펠릭스를 보며 순간 푸른장미의 현신을 보는 느낌에 소름이 돋았다.
‘어떡해. 나, 이 남자, 가지고싶어.’